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연세대학교 제 16대 총여학생회

happyfem@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2004. 3월 15일

16대 총여학생회 상반기 활동 정리

기획 **말하기의 권력**

특집 **운동과 다이어트**

장다리아고 상다리아고 여왕의 반성록과 이야기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 성폭력 예방교육**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상반기 대표 위스트(시시 남세스)

남성이 버려온 세상 **말은 누가 못하나**

She Said

happy

- 01 16대 총여학생회 상반기 활동 정리
상반기 활동 정리 • 2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 6

- 08 기획 | 말하기의 권력
어떤 말하기의 가력 • 10
모를 수 있는 권력 • 13
그녀들은 행복했을까
- "화남글녀"의 재밌대로 포장하기 • 15
죽거나 침묵하기 전에 말하기
- 여성의 언어가 배제되는 문학, 문학 비평 • 18

- 21 특집 | 운동과 다이어트
여는 글 • 21
운동,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 22
그녀의 직심상일 여름방학 프로젝트 • 25
진정한 의미의 운동, 건강, 다이어트? • 27

- 30 뭉이 만담 여름방학

CONTENTS



- 33 광고 「쥬이쌍스, 그녀들의...심장」
34 여성학 서평
쥬이쌍스, 그녀들의...심장
38 실의 달콤쌉싸름한 일상다반사
돈 버는 일상
40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여랑의 반성폭력 이야기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 성폭력 예방교육
42 이갈의 여성주의로 읽는 이야기
아버지를 위한 판타지(효자동 이발사)
44 남성이 바라본 세상 알은 누가 못하니
46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상반기 대표 워스트 (시사 난센스)
• 이번 호 「흐름이 만난 문화&문화쟁이」와 「단단의 여성주의 만화」는
필자 사정으로 없습니다.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 16대 총여학생회 상반기 활동 정리 -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 상반기 활동 정리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데에 비해, 그 발생부터 해결의 전 과정에 교수-학생 간 권력관계가 관철되어 있어 더욱 더 해결이 어려운 교수 성폭력. 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 단위가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 사건이 있는 단위의 지원을 위해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를 지난 해 10월에 꾸렸습니다. 16대 총여학생회는 2003년 겨울부터 「교수성폭력」에 참여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세요.

겨울 새움터 활동 (2/9~2/14) + 반성매매교양학교 (1/12~2/2)

올해에도 총여학생회는 겨울 새움터 활동(이하 새함)을 다녀왔습니다. 새움터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탈성매매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단위이자, 공동체입니다. 새함을 가면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한 활동가 분들과, 탈성매매 이후 활동가

로 자리매김하신 멋진 '언니'들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새함은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매매의 문제가 결코 나와 동떨어진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성매매 피해여성을 피해 여성이라는 말 안에 가두어 쉽게 대상화 해버리는 계몽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지요. 사실 이 짧은 말들로는 새함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의 일억만분의 일도 다 전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경험과 말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곳 언니들의 마음씨가 주는 감동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새함을 가기 전에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성매매를 나의 삶에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반성매매교양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의 쟁점과 현황 토론회 (2/17,18)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방향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을 꾸려 왔던 선배 여성주의자들과 각 대학

여성운동 자치단위에서 현재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활동 주체들이 모여서 「강의의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반성폭력 운동의 중요한 개념들을 현상에서 어떻게 다시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고, 성폭력 사건 '해결'의 실재와 의미에 대해 재고할 하는 자리였습니다.



상당실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
학칙을 개정하라!

여학생 수첩 발행 (2/23)

여학생 수첩이 좀더 예뻐지고, 좀더 알차졌습니다. 이항우씨가 그린 여운이 있는 우주인 그림 표지, 여성주의 달력(심지어 다달이 여성주의 명문도 함께 실려있지요!) 생리주기 달력, 여성주의/총여학생회 소개, 16대 총여학생회 사업계획, 성폭력과 새터 내규에 대한 이야기, 성지식에 대한 수다, 학내 여성지

도, 학내 여성주의 단체와 모임 소개, 여자친구들과 함께 가면 좋을 카페, 식당, 술집과 여성주의 영화, 만화, 음악 소개, 여성학 추천도서, 여성관련 즐겨찾기, 타로카드로 보는 별자리 점... 이 많은 폭지들이 알차게 지면을 채우고 있는 여학생 수첩. 다들 유용하게 쓰고 계시죠

캠퍼스 비상전화 설치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학교의 밤길은 성폭력이 너무나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해왔던 장소입니다. 학내 거리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조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여학생회에서는 학교 측에 캠퍼스 비상전화를 설치할 것을 꾸준히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학내 곳곳에서 캠퍼스 비상전화를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말부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세 성폭력 뿌리 뽑기 연대회의

연세 성폭력 뿌리 뽑기 연대회의는

총여학생회와 단대 자치단위에서 반성폭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단위입니다. 2004 연성투연에서는 새터와 OT기간에 반성폭력자료집을 발행하고,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성폭력 세미나를 통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함께하고, 단대 별 반성폭력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연성투연 화장실 신문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아카라카에서 있었던 성적불평등을 유발시키는 퍼포먼스(일명 '졸졸이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이과대 반 여성 & 반성폭력 주체들의 활동에 연대했습니다.

여성학 학교 (3/9~4/1)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여성학 학교를 꾸렸습니다. 처음 여성학을 접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며 여성의 언어를 쌓아 나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여성학 학교를 통해 많은 여자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녀들의 말을 듣고 나눌 수 있어서 참 소중한 행사였습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 성명서 (3/14)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안이 졸속 처리되었죠.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모든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여성에게 명분 있는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라크 추가 파병안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휴 뉴스레터 발행

총여학생회와 여학생들의 소통 공간을 만드는 작은 작업의 하나로, 그리고 여학생 휴게실을 좀 더 여성주의적인 공간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휴 뉴스레터를 제작했습니다. 그 시기의 총여학생회 활동과 여성이슈, 참여해보면 좋을 여성행사, 그리고 여성학 책 소개를 내용에 담았습니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지난 한 학기 동안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고 또 말했던 반성폭력 학칙 개정. 반성폭력 학칙 개정의 중요성과 의미는 이 짧은 지면에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없음에 대해 지적하는 활동도 함께 전개 했고, 4월에는 비민주적인 성폭력 대책 위원회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2500명의 학생들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적된 현 학칙의 문제 점을 세밀히 살펴서 반성폭력 학칙 개정 안을 새로이 완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2004년 1학기 정기 성폭력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대책위원회 테이블에서 학칙개정이 논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처장들이 바뀌면서 대책위원회의 교수위원들도 새로운 구성으로 다시 꾸려졌는데요, 교수위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작년부터 시작된 반성폭력 학칙 개정의 요구를 귀 기울여 들었다면, 서명에 동참한 2500명 학생들의 요구를 존중한다면, 좀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She Said 1,2,3호 발행 (3/15, 4/26, 6/7)

그녀는 말했고, 말했고, 또 말한다... 연세대학교 안에서의 여성의 이야기, 연세대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기 쉬운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를 섬세한 언어로, 그리고 깊은 언어로 풀어내는 여성주의 매체를 표방한 She Said가 3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She Said는〈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여량의 반성폭력 이야기〉〈이갈의 여성주의로 읽는 이야기〉〈봄이 만담〉〈단단의 여성주의 만화〉〈흐름이 만난 문화 & 문화쟁이〉〈재미있게, 또는 외롭고 미더어 일기〉〈여성학 서평〉〈월의 달콤쌉싸름한 일상다반사〉〈남성이 바라본 세상〉...9개의 고정 칼럼과 매 호마다의 〈기획〉〈특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e Said 1호에서는 아쉽게도 〈특집〉을 만날 수 없었지만, 2호에서 드디어 〈엄마와 딸 마주보다〉로 화려하게... 등장했지요. 〈기획〉에서는 1, 2호에서 각각 〈그녀들, 반을 말한다〉와 〈여성노동〉을 다뤘습니다. 뼈뚫한 총여학생회 일정 속에서 잡지를 준비할 때마다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언어를 다듬어서 만든다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럴수록 더 노력하는 수밖에요. 앞으로도 즐겁게 읽어 주세요~

3.8 세계 여성의 날 (2/28, 2/29, 3/6, 3/7)

3.8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뉴욕광장에서 있었던 섬유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의 쟁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96주년을 맞는 3.8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총여학생회는 3.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2004년 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서울대 병원 간병인 노조의 투쟁을 소개하고, 학내 여성인권 보장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반성폭력 학칙개정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도 앞 광장에서 자보전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와 함께 기념품도 나누어 드렸었지요. 행사를 통해 많은 여자친구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또 하나, 「장애여성 공감」, 「전장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한국 여성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모여 만든 「다름으로 답은 여성연대」에서도 3.8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했었지요. 총여학생회는 다달연대에서 마련한 'WOW! 또 다른 세상을 공감하기, 3.8 여성무지개시위 2004'와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상상력: 무지개포럼'에도 자원활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 상반기 활동 정리

메이데이 여/활 (4/24, 30, 5/1)

올해로 114주년을 맞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활은 여성주의적인 성찰에 기반한 여성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실질적으로 전무했던 메이데이 집회를 비판하고, 드러나지 않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각 대학 여성운동단위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메이데이 여/활은 「그게 알? 그대 일!!!」- 다양한 여성들의 다양한 노동권을 인정하라/쟁취하자! 라는 기초 아래,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여대생 취업난 살펴보기〉 〈감정노동〉 〈이주 여성 노동자〉 〈장애여성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총여학생회는 메이데이 여/활의 이름으로 학내에서 기획자보전을, 4월 24일 대학로, 4월 30일 인사동에서 사전 집회와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에 여/활로 참여했습니다.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5/11~5/13) 「FACE! WOMEN'S DESIRE - 여성,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에 반기를 들다」

제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에 이어,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제에 간헐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여성의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즐겁게 말하는 자리로서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FACE! WOMEN'S DESIRE-여성,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에 반기를 들다」를 마련했습니다. 조각그림 그리기-〈MUSIC HARMONY〉라는 개막제 행사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과연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들이 조각그림그리기 참여할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즐겁게! 성황리에 조각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지요. 첫날의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영화 상영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객들로 가득 찬 위당관 B09 강의실을 보면서 며칠 동안 번역하고 자막제작 작업을 한 보람을 느꼈던거죠. 여성주의 미술 워크숍 〈욕망을 그리다〉는 새로운 형식의 행사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가지 포럼-〈유령의 세계에서 온 소년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소년, 그 불안정한 발달함과 전복가능성에 대하여〉, 〈4명의 여인들의 연

애 이야기 - 그녀들이 알았던 이유는? : Lifestyle로서의 다양한 sexuality 실천에 관한 페미니스트 포럼)은 자신의 경험과 정체성에 기반해서 삶을 성찰해나가는 여성주의의 힘을 가득가득 느낄 수 있는 행사였지요.



새움터 연대 장터 (5/20)

대동제 기간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센터 새움터와 연대장터를 차렸습니다. 새움터에서 만들어 오신 예쁜 비즈공예품도 팔고, 새움터 언니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맛있고 풍성한 안주들도 마련해 놔었는데, 애석하게도 그날 날씨가 무척이나 험난했었지요. 장터 내내 쏟아지는 비에 비닐을 덧대고, 물을 빼고, 천동변개가 치는 와중에 장터 자리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She Said**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1 결성된 배경

교수 성폭력의 해결,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이하 교성절연)는 교수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2003년 10월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들이 모여 결성한 연대체이다. 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총여학생회가 활발히 참여한 활동 중 하나이기도 했거니와, 아직도 "설마...교수가 성폭력을..."이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연대회의가 꾸려질 수밖에 없을 만큼 교수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많은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교수-학생 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수 성폭력'은 대학에서 여성의 학습권과 생활권, 더 나아가 노동권과 생존권까지 침해하고 박탈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온다. 특히 성폭력에 교수 지위가 이용됨에 따라 교수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수많은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가시화된 대부분의 교수 성폭력 사건들만 보더라도, 사건 이후의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해결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 당국은 가해자가 교수라는 공식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 가해를 했다는 점을 무시한 채 교수 성폭력 사건을 남성 교수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하면서 학교 차원의 사건 해결과 예방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 교수를 보호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성폭력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다.

1. 재심위의 '파면' 결정 취소 이후, 학교측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여 또 다시 '파면' 결정을 내렸으나, H교수는 이에 제지 불복하고 다시 재심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재심위의 최종 결정은 '파면'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학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폭력 사건 처리 논의의 과정이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 학생보다는 교수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논의되어 최소한의 정당한 해결조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의 반성폭력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여성부가 각 대학들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대학이 가해 교수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내렸다 할지라도 교육부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가해 교수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심의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등 성폭력 근절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교성절연은 이러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이전에 구성되어 활동했던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와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고민을 이어받아 교수에 의한 각종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총여학생회도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2

활동 내용 정리

1. 2003년 11월 4일 기자회견 (장소: 서강대학교)

2003년 7월 말, 성폭력 가해 교수인 서강대 H교수에 대하여 서강대측은 파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학교 당국이 사건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린 '파면' 결정을 취소시켰다. 재심위는 이전에도 동국대 K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를 '정직1개월'로 낮추는 등 교수 성폭력 근절에 커다란 걸림돌로 서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미루어, 교성절연측은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2. 2003년 12월 2일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장소: 연세대학교)

당시 서강대 H교수와 동국대 K교수에 대한 재심위의 문제적 결정에 더불어, 서강대 K교수와 서울시립대 J교수도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였다. 교성절연은 진행 중인 두 사안에 대한 재심위의 결정이 앞선 두 건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재심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3. 2003년 12월, 2004년 1월, 2월 교육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교성절연에 참여하는 단위들이 돌아가면서 재심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하였다.

4. 2004년 1월, 2월

재심위 문제 해결과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5. 2004년 1월 19일 기자회견 (장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앞)

이 날은 서울시립대 J교수의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고, 따라서 재심위의 옳은 판단을 촉구하고, 가해 교수를 구제하는 재심위의 문제점들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심위를 상대로 한 교성절연의 꾸준한 비판과 행동의 결과로, 이 날 재심위의 결정은 J교수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따라서 J교수는 서울시립대측이 원래 내렸던 '해임' 징계를 받게 되었다.

6. 2004년 2월 23일 서강대 K교수 성폭력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촉구하는 집회 (장소: 서강대학교)

서강대측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서강대 K교수의 재심의 결과가 '정직3개월'로 낮추어져, 재심위는 성폭력 가해 교수를 구제하고 학교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 번 더 하였다. 이에 교성절연은 서강대학교측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7. 2004년 3월 27일 부산대 K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

부산대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K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대해 교성절연은 부산대 성폭력 대책위를 상대로 책임 있게 사건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8. 2004년 5월 10일 부산대 교수 성폭력에 관한

공개 강연회 강연

부산대 총여학생회에서 주최한 "권위의 가면을 벗겨라"라는 제목의 교수 성폭력에 관한 공개 강연회에 강연자로 참석하였다.

9. 2004년 5월

교수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반성폭력 학칙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감독/감사를 하지 않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교성절연은 교육부의 이러한 책임 방기 때문에 교수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10. 현재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은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여겨지는 문제이다. 따라서 반성폭력 학칙에 교수 성폭력 특별 조항 신설이나, 강의평가서에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 문항 첨가 등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계획과 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행동하고 있다. **See Said**

여는글

All violence
is the illustration of a pathetic
stereotype

시끄러워, 뭘 안다고 떠들어대! 입 다물라고

남편의 한마디에 그냥 말문을 닫아버린 한 여성의 모습에서 나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곳에 위치 지어진 내 모습을 본다. 것처럼 심하고 노골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말하기가 좌절되고 배제되고 있는 나를.

조모임, 토론 등 (흔히들 말하는) '공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는 말하기의 어려움 혹은 어떤 답답함을 물어둔 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야만 했다. 심한 경우, 그 설명 부재의 원인이 내 유년함의 소치라고 자책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그 답답함의 원인이 내 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었다. 비판의 초점을 잃고 전전긍긍하던 중 '그것은 이미 논리의 영역을 벗어난 권력의 문제인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한동안 멍해있었던 기억이 난다. '말하기의 권력관계'... 나는 단 한번도 그것에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는 주체로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나는, 그리고 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말하기 주체를 묻고, 그 비판의 대상을 재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말하기의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지금, 말의 '전장'이 아닌 대화를, 더욱이 '소통'을 말함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했다, 또 다시 말한다.'

she said 이번 호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 치밀하게 조직된 말하기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여성의 말하기를 어렵게 만드는지, 나아가 그러한 상황에서 소통을 말함이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첫 번째 글에서는 말하기에 있어서 성별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일말의 소통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면, 결국 자기 상황에 기반한 말하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나아가 두 번째 글에서 우리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각본, '모를 수 있는 권력'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 한가지 더 ('화상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하 화남금녀-를 보면서, 특히나 마치 세상 남녀 간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노라 기뻐하는 분들에게 여간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말하기 권력 관계의 복잡한 층위를 무화시키는 화남금녀의 그 명쾌하고도 알뜰한 술수를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더해서 이데올로기적이기까지 한지를... 마지막 꼭지에서는 여성 작가의 문학, 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문학 비평을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원천 봉쇄하는 그남들의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비판함과 동시에 더욱더 생산되고 발견되어야 할 여성적 텍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그녀들의 말하기가 갖는 소중한 의미를 역설하고자 한다.

이 글을 보면서 혹자는(특히 비판 대상에 위치한 자들은) '그래, 어디한번 말해보시지'라는 일관된 태도로 또는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해'라고 치부하고 텍스트와 자기 자신을 유리시킨 채 글을 읽을지도 모르겠다.(최악의 경우 그냥 무시하고 넘길지도 모를 말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즉, '타인의 힘겨움을 이해하기 위한 들기로부터 소통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딱딱한 글 읽기를 하고 있는 당신은 결국 또 다른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닐까?

by 모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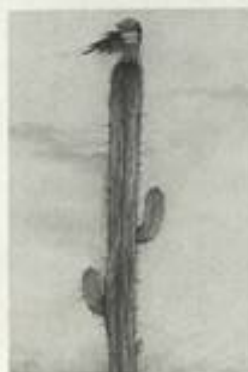
어떤 말하기의 기억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말을 한다.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말하기들 중, 이 지면에서는 '어떤' 말하기의 경험이 내게 남긴 불쾌함과 그 말하기에 대한 성찰이 내게 남긴 것에 대해 써 보려고 한다. 그 '어떤' 말하기는 얼마 전 끝난 대동제 기간에 동아리나 과, 반 행사를 준비했을 회의에서, 세미나 자리에서, 혹은 가히 학습노동이라 불릴만한 의미 없이 남발되고 있는 조모임에서 우리가 흔히 마주하게 되는 말하기이다. 단지 나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넌? 이라고 묻는 대화가 아닌, 서로의 세계관을 충돌시키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흔히들 논쟁적인 말하기라고 부르곤 하는.

이 글은 그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하에서는 쓰는 이와 읽는 이 모두의 편의를 위해 이런 수식 없이 '말하기'라는 단어로 그 말하기의 경험을 지칭하겠다.

이런 식의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기대하는 걸까. 말하기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개인의 경험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혹은 소통까지 닿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다른 경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만드는 통로이다. 특히나 논쟁적인 말하기는 그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대동제 장

과연 그 답답함의 책임은 내 것이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잘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그 선배의 말하기 내용에 비해 내 말하기의 내용이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말하기인데도, 여자선배에게 혹은 동기들과 대화할 때와 남자선배와 대화할 때는 다른 감정이 남는 것일까.



터의 메뉴를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여성문제가 어찌고, 한국 사회 운동의 미래가 어찌고, 하는 대화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경험이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끊임없이 말을 한다. 말하기의 결과는 비단 상호간의 소통이라는 부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말하기는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체로 자기 확인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고 공감과 지지를 얻은 경험은 한 개인의 자신감, 자존감으로 축적되기도 한다. 즐거운 대화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나와 상대의 경험 모두가 배제되지 않았던,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좀 더 정리된 자신을 만져볼 수 있었던 기쁨이

그 대화 뒤에 남아있었다.

순진하게 생각하고, 순진한 언어로 말하자면 나는 말하기에 대해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써 놓고 보니 더욱 그런 것 같다. 너무나 다른 개인사와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말하기를 통해 소통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쯤에서 잠시 지나온 수많은 말하기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자. 그것들은 과연 소통의 경험이었을까?

남자 선배와 논쟁을 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의 나열, 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의 나열 앞에서 나는 나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그 대화는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남긴 채 그 선배의 말에 나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¹⁾ 처음 그런 말하기의 경험이 있을 후, 말하기를 통한 자존감의 확인 따위는 염두도 못낸 채, 내가 한 것은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 대화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드러내고 설득해내지 못한 것은 나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쌓아야겠다고 결심했던 내공의 내용도, 나에게 낯설던, 그 선배의 언어를 익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 상황이 남긴 답답함을 나의 탓으로, 내가 극복해야하는 무엇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러 공간에서 이런 식의 답답한 말하기 경험은 반복되어 왔고 그제야 나는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 볼 수 있었다. 과연 그 답답함의 책임은 내 것이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잘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그 선배의 말하기 내용에 비해 내 말하기의 내용이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말하기인데도, 여자선배에게 혹은 동기들과 대화할 때와 남자선배와 대화할 때는 다른 감정이 남는 것일까.

그 대화에서 '더 정당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나와 대화한 남자선배는 그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했던,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의견을 쉽게 표현하고, 관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선배였고, 남성이었다. 반면 나는 후배였고, 여성이었고, 그 선배에 비해 그 공간에서 발언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서로의 위치는 그 대화에 대한 각자의 자세를 결정지었다. 나는 선배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반면, 그 선배는 후배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조건들이 이러하니, 그 대화가 선배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의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잘 듣기 위한 '경청'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적인 권력 관계들 속에서, 그 권력들이 성찰되지 못한 채 어떤 대화가 진행된다면, 그 대화 속에서는 누군가가 가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듣지 않아도 되는' 권력이 고스란히 작동되어 소통을 가로막는다.

일상의 소통을 가로막는 권력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 몇 학번인가, 몇 살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 공동체에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가²⁾, 등등에

¹⁾ 그리고 보면 여자 선배들과는 논쟁적인 기억이 별로 없다. 여자 선배들과의 말하기는 논쟁-설득의 말하기가 아니라, 대부분 서로를 지원하고 공감하는 말하기였던 것이다.



따라, 혹은 이 요소들의 다층적인 결합에 따라 서로의 선지식, 경험은 재단되고 말하는 위치가 결정지어진다.

그 중에도 성별권력 관계는, 특히 말하기에 있어서는 권력관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남성, 남자선배들은 여성, 여자후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들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가짐 없이, 혹은 여자후배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겠다는 태도로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면서 그것을 대화라고 착각한다.

특히 여성이슈에 관한 대화/논쟁의 경우 성별 권력관계의 작동은 더욱 분명하고 심각해진다. 여성이슈에 관해 여성은 항상 '대답해야 하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대화에서 여성은 '소통해보세'라는 마음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해 설명을 하더라도, 그녀들의 언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알아야 하는 남성들의 통한 표정과 '잘 모르겠다, 더 설명 해 달라' 혹은 '그 말은 틀린 것 같다'는 말만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결과로는 과연 그 여성이 '제대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일까?

흔히 '일반적'이라고 인정받는, 삶의 각본들은 대부분 여성의 경험과 언어가 배제된 채, 남성의 경험, 남성이 재단한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론들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내는 것이 가능한 이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

라도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의미를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기존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말들로, 배제되어 있는 경험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말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여성이슈에 관한 여/남의 대화에도 말하고 - 듣는 위치 설정과, 말하고 - 듣는 태도 자체에 사회에서의 여/남간 권력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말하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은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할 때, 대화 상대인 남성이 네 말을 이해하지 못 하겠어 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를 수 있는 권력'을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다.

소수자의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소통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가진 권력-그가 가진 기득권으로 인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므로 모를 수 있는 권력을 먼저 성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남성은 여성에게 '모르겠다'는 말을 제대로 해선 안 되는 건가? 여기까지 글을 읽고, '성찰'이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식의 냉소적인 태도로 소통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말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떤 자세로 말하고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는 말하기의 권력관계가 서로의 정체성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쉽게 말하기 이전에, 자신이 '모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 그런 성찰의 기반 위에 좀 더 경청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사실 소수자의 경험을 그렇지 않은 아가 들으려 애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 그 이야기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하는, '불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그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 대화들에서 불편했던 것은 질문을 받은 나였다. 정작 불편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She said

2 많은 여성들이 남성중심적인 놀이-술자리-일상 문화가 성립되지 못한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역시 성별권력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이다.
3 특히 이런 대담을 하는 이들은 무언가 '논리적인' 활동으로 여성이 말에 반박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활동은 사실 논리적이었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순인된 언어들의 조합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식의 언어 구사를 즐기는 이들은 문란 중에 자신의 경험과 정서성을 드러내는 말하기를 '논리적인 말하기'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통되어야 할 진실은 어떤 언어에 담겨있는가? 논리적이고 순인된 언어들의 조합에 그치는 말하기에는 자신 이 들어 있지 않다. 말만 난무할 뿐 그것에는 자기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는 진실성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다.

모를 수 있는 권력



"제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지. 그치만 페미니즘은 앞뒤가 안 맞아"

"당신들 말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

"무슨 대안? 너희들이 그렇게 팔짱 끼고 배 내밀고 앉아서 헛소리만 하지 않는다면야."

사실 여성주의자들은 그 동안 많은 말을 해 왔다. '여성주의'라는 단어가 들리기 무섭게 눈감고 귀막아버리는 무수한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하디 흔하디 좋아하여 마지않는 구분하기- '공/사 영역'을 막론하고 말이다.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현재도 겪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으니, 가르쳐 달라'는 류의 남자들의 질문이다. 그러면,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으리라 생각하며 이 사회의 남성중심성에 대해, 질문자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의도했던 하지 않았건 간에 억압자로서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 뭔가 다른 생각의 물꼬가 트이겠지 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네들의 생각은 얼마나 기계적이고 단절적인지! 조금만 다른 이슈와 상황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질문을 하며 대답을 구한다. 처음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많은 여성학 서적들과 여성주의 매체와 웹진 등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내어 왔는데 남자들은 왜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지, 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말이다. 하지만 '접하지



남성들이 말하는 '모름'은 곧,

모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여성들의 고통, 경험이 발화되는

목소리에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성폭력을 가해놓고도

그게 성폭력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주위에서는 그 애가 '몰라서' 그랬을 거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한다.



by 열



못할 수도 있지.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거야. 여성주의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만큼 그들에게도 변화가 생길거야. 그래 이게 운동이지.' 라고 또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활동가로서의 양심과 의무감으로 최대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열심히 페미니즘 세미나를 함께 했던 후배 남자아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어 나타나고, 여성해방에 대해 그토록 열변을 토했던 좌파 지식인 역시 성폭력 가해자로 둔갑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토론 하며 때론 다그치며 절친하게 지낸 친구아이는 몇 년이 지나도 '넌 정말 남자라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절망감만을 마음 한가득 안겨준다.

사실 변화하지 않을 거라면, 성찰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는 척하지 말고 맨날 똑같은 질문으로 여성주의자들을 그만 좀 괴롭히라고 말하고 싶다. 가부장제의 수혜자들이 여성 억압이 무엇이나고 여성들에게 묻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은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들이 흔히 각을뻗한 '일상적' 답답함을 이렇게 늘어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는 아니다. 문제는, 모르는 당신이다. 모르겠다고 말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왜 모르는지 자문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말하는 '모름'은 곧, 모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여성들의 고통, 경험이 발화되는 목소리에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껏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으며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폭력을 가해놓고도 그게 성폭력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주위에서는 그 애가 '몰라서' 그랬을 거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한다. 모 대학의 진보적이라는 총장이 성폭력 가해 교수를 옹호하자, 그 총장이 '순진'하고 뭘 잘 '몰라서' 그랬을 거라며 감싸주고, 혹은 자신은 잘 '모르겠다'며 침묵한다. 남성인 자신의 입으로 태생적 한계를 운운하기도 한다. 태생적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 '몰리한' 위치를 겹쳐서 받아들이고 성찰하여 어떻게 하면 이 남성 중심의 사회가 잘못 굴러가는 데에 자신이 일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여된 채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만 한다.

보통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과 권력을 수반해준다. 반해, 여기서의 '모름'은 몰라도 되고 모를 수 있는, 그 자체로 권력이다.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으려 하는 그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해내면서 또는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커다란 걸림돌로 존재하면서 마음껏 그 권력을 행사한다.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 남여평등에 '동의' 한다는 사람들. '모름'이라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자신이 향유하고 있던 '모를 수 있는 권력'을 먼저 깨닫기 바란다. 그 안락의자가 가시방석이 되길 바란다. 그걸 느끼게 된다면 부유하는 단어들만이 난무하는 속이 텅 빈 대화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지구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지 않다면, 할 말 없다. **She Said**

by **She Said**

그녀들은 행복했을까

“화.남.금.녀.”의 제멋대로 포장하기¹⁾

화남금녀를 들어보셨나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파산 진적이었던 미국 출판사 하퍼 콜린스를 수렁에서 구해준과 동시에 저자 존 그레이를 부부 치료사로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책, “화상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이하 화남금녀)를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터다. 어쩌면 소위 여성학 수업이라는 범주로 분류되는 몇몇 강의에서 교재로 채택된 이 책을 열정을 가지고 탐독하였거나 반대로 경멸과 의혹에 찬 시선으로 던지시 바라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양쪽 어느 경우가 되었건 간에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화남금녀”와 더불어 “화성...금성...”시리즈는 여성학(이라고 분류되더라도 실제 내용을 들여보면 여성주의, 아니 심지어 그 순진하기 짝이 없는 표현인 “양성평등”에조차 그다지 공헌하지 않는 수업이 많지만) 수업에서 채택될 정도로, 많은 이성애자 커플들이 겪는 소통의 어마어마한 제동을 한 큐에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고전, 경서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일 게다. 왜일까. 무언가 미심쩍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시선과 호감을 감추지 못하는 많은 이성애자 커플들을 끌고 있는 화남금녀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짚어내야 할 점은, 화남금녀가 다음과 같은 믿음을 아무런 성찰 없이 너무나도 멀리, 효과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성애자 커플(실은 이 책은 이성애중심주의적이기 이를 데 없다)들이 겪고 있는 소통의 문제는 단지 남녀 차이, 특히 남녀가 말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인데, 이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재난이다. 그러므로 인내심과 노력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이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명제는 처음 순간에는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만큼 명



한 어떤 화남금녀와 같은 책을 이 짧은 글로 해부하는 것은 허무니없이 한계가 많은 작업임과 동시에 얼마간 진부한 행동일지도 모른다. 화남금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학계에도 많은 수업에서 남다른 “소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책을 교재로 채택됨이 놀랐었고, 이 책은 여전히 많은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여성학 교재로 인식하도록 요구받은 친구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마땅하다.

쾌하고 현명한 진단일지 모르겠으나, 이는 실은 연애처럼 친밀성 하에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발생하고 온존하는 남녀 간 불평등을 여지없이 '이해심'이라는 장막 뒤로 숨겨버리는 일이다. 그러나 누가 대부분 말하고 해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고, 누가 대부분 듣고(이것은 경청의 의미가 아니다) 선언하는 입장에 처해있는지, 과연 그와 같은 사실이 성찰이 부재한 채로 '남녀의 차이'로 포장되어도 되는 것일까? '남녀의 차이'는 사회화의 결과물이며 권력의 불균등함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은 채? 화남금녀의 속임수는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슬기로운 여자 되기의 함정

차라리 화남금녀는 참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화성인들은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 해결책



그리하여 남녀 간의 말하기의 차이는 힘의 불균등함에서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그리고 이상적으로 균등한) 다름에서 비롯되니 그저 이해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풀릴 것이라 믿고 싶은 집합적인 간절함을 제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을 찾고 나서야 기분이 좋아진다... 금성인들은 누군가에게 자기 문제를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53) 그리하여 '여성'이 남자의 동굴을 이해하면 그의 침묵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남자가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동굴에 절대 들어가지'(110) 말라는 것이다. 왜? 들어가게 되면 남자는 "자제력을 잃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111)!

아이러니한 것은, 사적으로 친밀한 남녀 관계에서 감정 노동과 정서적 보살핌을 아낌없이 수행하길 기대 받는 것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의무"를 다하려고 말을 건네려 할 때는 남성이 "자제력을 잃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 참고 기다리며 그 행동을 해석하라는 점이다. 관계에 필요한 소통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도 그것은 남성의 당연한 특질로 규정됨과 동시에, 그 침묵이 여성의 말하기와 대치되어도 그것은 남성의 책임이 아니라 여성이 적절한 때와 장소를 가려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와 대화를 하려 하거나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가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기 쪽에서 먼저 대화를 열 수 있어야 한다'(147)라는 조언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 대화를 여는 것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방식과 방향 자체를 운용하는 힘은 여성에게 있지 않으며, 대화의 진행 도중 침묵하거나 여성이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을 통제하는 힘 역시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찝찝함"은 언제나 앙금처럼 깊게 가라앉아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이렇고 저래서 그런 거야'라고 '친절히' 선언하는 남성 파트너에게 '그건 아닌데...'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대?'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관계 자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를 낳기 때문에 연애에서 소통의 민주성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선언과 통보로 소통의 한 방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변이나 해명은 실은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



린다. 그다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동굴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처지를 '금성인'으로 하여금 해석하기를 요구하는 '화성인'은, 그에게 항변하거나 해명하는 '금성인'의 말하기를 '감정적인 말하기'로 당당히 규정하게 된다.

결국 연애 관계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현명한' 여자라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남자에게 말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가 진정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상대를 압박하지 않고도 자기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62)어야 할 만큼 감정을 발휘함에 있어, 그리고 말하기의 '기술'에 있어 재주를 부려야 한다. 반면에 '101가지 방법'을 이용해 '점수'를 따면 소통의 민주성이 충족되기 전에 연애관계를 어둡게 봉합시킬 수 있다고 믿는 남성들은 그저 "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적어도 하루에 두 번은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며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기"만 하면 될 듯 하다(257-264). 결국 화성인은 "상대가 요청을 해야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276)는 존재라 하니, 금성인은 열심히 말하기만 하면 연애나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는 절로 풀리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어찌나 명쾌한 처방인가. 그러나 관계에 있어 '모를 수 있는 권력을 발휘하여도 그것을 성찰하지 못하는 것은 화성인의 특징'이라는 발상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슬기로운 여자가 되기를 '권유'(실은 요구에 가깝지만)하는 것은 그대로 함정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모든 이성애자 커플이 소통의 민주성을 완벽하게 배반하고 있지는 않으리라 (역시 순진하게) 짐작해본다. 그러나 화남금녀를 비롯한 화남금녀의 아류작(주로 '~하는 남성, ~하는 여성'류의)들이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하기의 권력을 가진

'그들'이 도처에서 여성의 말하기를 단정하고, 매도하고, 차단하는 사실에 눈을 감고, 사적 관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소통의 무덤을 만든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그리하여 남녀 간의 말하기의 차이는 힘의 불균등함에서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그리고 이상적으로 균등한) 다름에서 비롯되니 그저 이해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풀릴 것이라 믿고 싶은 집합적인 간절함을 제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성애자 커플을 이루든 다른 어떤 관계를 이루든, 남녀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와서 기억상실증을 겪게 되어 싸우게 된 불행한 이들이 아니다. 화남금녀가 믿고 싶은 바와는 달리,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은 바와는 달리 남녀관계는 실제로 "고통스러운 투쟁"이다. 관계 속에서 자신이 영위하고 싶은 욕망을 전달(이라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고 그것이 부딪힘을 겪는 과정에서 "그래도 행복해"로 끝맺는 동화를 한편으로 진행시키려는 여성의 노력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투쟁이다. 그래서...그래서...결국 그녀들은 행복했을까? **She said**



by 고동

죽거나 침묵하기 전에, 말하기

여성의 언어가
배제되는
문학, 문학 비평

입을 열며

혼자 글을 읽을 때엔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책은 악을 쓰며 던져버릴 수도 있었고, 책의 여백 곳곳에 끔찍임을 남길 수도 있었다. 남성 작가들의 명작으로 구성된 위대한 문학 정전들, 남성 중심적 서사들과 그남들의 환상을 채워주는 비현실적인 여성 캐릭터들, 그 사이에서 적어도 '통새'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는 있었으니까.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 문학 관련 전공을 선택하고 난 후 오히려 그 몸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든다. 모두 함께 텍스트를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억울함과 욕구불만에 시달린다. 더 많은 질문들을 접하고 있는데, 왜 내 갈증은 점점 심해지는 것일까?

말에 위계가 지어지는 순간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꽤 알찬 문학 수업이 하나 있다. 매주 작품 하나를 읽고 레포트를 쓸 것이 요구되는, 열성적인 토론 수업. 그동안 수업 시간에 읽었던 8편의 소설은 모두 남성 작가의 책들이었다. (사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거의 모든 수업에서 여성 작가의 작품을 다루는 경

감정을 이입할 대상은 하나도 없고, 이 텍스트가 나와 세상의 어떤 접점이 되는 조금의 느낌조차 없는 텍스트를 붙들고 앉아있을 때면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그 소외감과 불편함을 정교하게 언어화해내는 것이 페미니즘 비평의 일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조차 땀겨져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비평은 답론 자체가 권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우는 희귀할 지경이니까) 소설의 시대-정치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남미 소설의 특징 때문인지 전쟁과 관련된 내용도 무척 많았는데, 나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강간과 성매매 묘사를 읽어야만 했다. 상황을 재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재현하는가 일 테니까. 적나라하게 성폭력 묘사들과 그것이 중남미 역사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나는 몸과 마음이 힘들었

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토론 시간에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언어들로 가득한 어떤 작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던 여학생들의 의견을 한 고학년 남학생이 저지했다. "이 작품은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뒤에 가면 페미니즘 비평을 할만한 작품이 많지 않다. 이제 그만 하자." 이제껏 그 수업에서 지켜져야 할 물이 있었다면 '혼자서 많은 말을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조금의 공포(아 나는 은근히 수줍어서 이 공포가 항상 심하다)만을 극복한다면 흥미로운 감상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보기 드문 수업이었던 게다. 그런데 그 순간 그남은 말의 위계화를 만들어냈다. 다른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그만해라' 하며 여성들의 감상은 쓸데 없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나는 분노스러웠다. 몇 페이지의 어떤 구절이 좋았어요, 류의 감상마저 자유롭게 오가던 그 수업에서 유독 '그만해야 할' 말이 여성들의 당연한 불편함이었다는 것, 그것이 고학년 남학생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텍스트의 '본질'과 작가의 '의도'를 내밀하게 바라보지 못한 채 표현 등을 예로 들어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여성들의 태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비생산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남들이 그렇게 쉽게 화자들의 감정에 몰입해서 '핵심'에 다다르는 순간, 나는 텍스트의 주변을 뱅돈다. 하지만 감정을 이입할 대상은 하나도 없고, 이 텍스트가 나와 세상의 어떤 접점이 되는 조금의 느낌조차 없는 텍스트를 붙들고 앉아있을 때면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그 소외감과 불편함을 정교하게 언어화해내는 것이 페미니즘 비평의 일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조차 땀겨져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비평은 답론 자체가 권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 작가들을 다루는 수업은 따로 있는 것처럼, 여성주의 비평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다룰 때만 개입해야 하는 편협한 답론으로 취급당하기 때문이다.

훌륭하고 위대한 작가는, 보편성을 획득합니다.

이번 학기에 듣는 또 하나의 수업. 독문과의 수업에서 들었던 '훌륭한 작가는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말. 안 그래도 보면, 객관, 중립 등의



단어가 기독권의 이익에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 저런 단어만 봐도 웬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들은 꽤 공감이 갈 때가 많았다.

변두리, 소수자 정체성을 중시하는 문학관. 자기 자신이 맞닿고 있는 현실과 만나지 않는 문학회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모든 문학이 현실 참여적이거나 정치적이어서야 한다는 당위와는 다른 이야기일테다. 텍스트를 읽는 독자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글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정상'으로 규정된 세계에 의문을 느끼고, 스스로의 다름에 고뇌하며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 역시, 내게 은밀한 기쁨을 주었다.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나를 소외시키는 글들, 내 세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글에는

모든 인간이 이해할만한 글을 써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한 때 함께 동의하지 않았던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협소하고 인간의 눈으로 봐야 한다면,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던 말인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사람들이 오해하듯 '정치적 목적이 앞서서' 텍스트를 읽기 때문도 아니고, 여성주의라는 당위를 들이대며 텍스트를 분해하기 때문도 아니다. 역으로 이 책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공정하지 못하거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재현을 불성실하고 폭력적으로 해내는 작가들의 작품은 <재미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체성을 가지고 읽기,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읽기를 강조하던 그 수업에서도 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설 속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간명한 '사실'을 동성애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로 수강생들은 위험한 논쟁을 시작했고, 결국 동성애로 보지 않는 것이 더 문학적으로 훌륭하다는 메스꺼운 의견에 도달했다. 그 수업에서 나는 십대 소녀에게 사랑을 느끼는 늙은 남성 작가 괴테의 사랑도 보았건만, 어쩌서 명백한 사랑이 그들의 눈에는 사랑이 아니어야 '문학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일까. 그와 더불어 교수님은 동성애로 해석하는 최근의 조류들, 페미니즘 비평 등이 지나치게 '협

소'하다며 페미니즘 비평에 함몰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인간'을 다루는 것이 결국엔 옳다는 말과 더불어.

부모성 함께 쓰기를 써서 발표하고, 여성주의 비평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던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모든 인간이 이해할만한 글을 써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한 때 함께 동의하지 않았던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협소하고 인간의 눈으로 봐야 한다면,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던 말인가. 지독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그 순간들을 나는 모두 기억한다. 어떤 방식으로 그날들의 언어가 여성들을 소외시키는지를, 그 고상하고 추상적이고 배타적인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 발바닥치기보다는 나도 오만하게 차라리 인간이 아닌 여성임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

죽어버린 말, 말라버린 혀 쓰지 않았기에

시간의 기억 속에 매장될 사용되지 않을 침묵된 역사 과거
여성 남송자여 아흐레 낮밤을 기다린 어머니 그녀를 찾아내라
기억을 복원하라 여성 남송자 딸이며, 대지 감속한 곳에서 그녀가
떠올 때마다 생을 복원하라 쓰기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말라버리
기 전에 잉크는 가장 진하게 쏟아진다.

~차 대역사 학점 자료, 덕대 Dicke, p.133 김성애 김은실 신영숙 역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기분이 들 때 나는 텍스트 속으로 들어간다. 무언가를 읽거나 쓰지 않고는, 아마 평생 살 수 없을 것이다. 내게는 언어가 절실하다. 앞에서 여성의 언어에 대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에 대해서 주절주절 이야기해 보았다. 그 입 다물라는 구체적인 억압에서부터, 은근히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둘러싼 남성들의 독점적인 권력들. 그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고,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침묵된 이야기들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삭제된다. 그 시체 위에서 왜곡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나는 여성들이 죽거나 침묵하기 전에, 잉크가 말라버리기 전에 더 저항적으로 텍스트를 대하고, 더 많은 그녀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She said

by 나나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24집 편집장 이제는 소속 없이 학교를 오가며 수업시간에 받는 스트레스로 미쳐간다. 지겨워라 지겨워라, 하루에도 몇번씩 그녀들의 입을 꼬대버리고픈 욕망에 시달리면서, 그저 먹는 게 낙이더라.

다이어트



특집

운동과 운동, 운동

이번에도 She said의 특집팀 기획회의에서는 많은 주제가 나왔다. 결혼, 다이어트, 연애, 맛집, 몸매들기 등의 여러 주제들이 허공을 떠돌다가, 결국 우리가 골라잡은 것은 운동과 다이어트였다. 운동과 다이어트라는 어찌 보면 따분한 주제가 우리 손에 잡힌 것은 시기상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여름 하면 노출의 계절이고, 노출을 하려면 몸매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년 동안 숨겨두고 방치해 둔 몸에게 '이제 여름이 되었으니 화려한 자태를 뽐내다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니, 결국 우리들은 이번 여름, 또 한번 살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다이어트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잊었는가 몸짱, 몸짱이 되기 위한 '건강' 다이어트, 바로 운동 다이어트! 그거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여름마다 해오던 식이요법 (안먹어서 살빼기)들은 바보들의 한심한 작태가 되고 헬스, 요가, 댄스 등을 이용한 '운동' 다이어트들이 여성의 건강과 몸매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양 선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주의 해체의 특집팀을 맡고 있는 우리들도, 그 태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시인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도 그 족쇄를 벗어나보고자 몸부림치는 의미에서 이번 주제가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글인 '운동,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에서는 이미 20대에 접어들어 여성들에게 이제는 너무나 멀어져버린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며 느끼는 쾌감들을 추억해 본다.

두 번째 '그녀의 작심삼일 여름방학 프로젝트'에서는 운동과 다이어트의 그 오묘한 관계에 대한 단정들로 과연 운동과 다이어트는 어떤 식으로 또 다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가, 끊임없는 다이어트의 강박 속에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관념들에 과연 주체성이 남아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의 운동, 건강, 다이어트?'에서는 운동과 건강과 다이어트라는 삼박자가 얼마나 한 불협화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이라는 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건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또 다시 여름이 돌아오고 있고, 우리는 또 다시 다이어트들을 하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여성의 몸매에 대한 염려에서 정작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운동,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오마 전 여성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5km를 달렸다. 5km라고 하면 조깅코스 정도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이후 '체육' 또는 '운동'이라는 걸 접할 기회가 없었던 나로서는 그 정도 뛰는 데에도 큰 결심이 필요했다. 5km라는 거리를 거뜬히 뛰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었다. 한 번도 그만한 운동을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도 힘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사실 그랬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되돌아봐도, 학년이 올라 갈수록 운동과 나의 거리는 멀어졌다. 4학년 즈음 남자아이들이 기마전을 하고 여자아이들이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순간부터였을까. 5학년 때 반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남학생들을 열렬히 응원하던 우리 반 여자친구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피구를 했다. 그래도 이 때는 공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진 않았던 것 같다. - 대학 신입생 수련회 때 했던 피구에서는 공이 너무 무서웠다.

남학생들은 점심시간이면 항상 그렇듯이 운동장을 장악했다. 몇 명에서 축구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과 공들이 운동장을 넘나들었고, 그것은 운동장 구석의 농구 골대 밑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때에 나는 확실히 날던 공이 내 뒤통수에 와 박힐까 두려워하면서 슬금슬금 운동장 귀퉁이로 건너 여자친구들과 고무줄놀이를 했다. 그러다 가끔 '박' 하고 공을 맞는 날이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공을 찾아서 땀하고 돌아가는 남자에 뒤에다 뽀뽀 소리를 지르는 게 고작이었다. 이 축구공에 대한 공포는 고등학교 까지 이어졌고, 대학에 와서는 대강당 앞의 농구 골대 사이를 지나는 게 새로운 두려움이 되었다. - 지금은 골대를 이전해서 다행이지만.

중학교에 가서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여자 중학교였기 때문에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서 날아올 축구공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 학교 체육용품 창고에는 축구공이 단 한개도 없었다. 대신 우리는 시간이

나면 교정을 거닐거나, 앉아서 게임을 했다. 가끔은 교실에서 선생님 몰래 말뚝박기를 하기도 했다. 그건 무척 신나는 놀이였지만 선생님께 걸리면 여자애들이 그런 것이냐 하고 논다고 핀잔을 받기 일쑤였다. 대신 선생님은 우리에게 고상한 체조를 가르쳤고 점심시간마다 강제로 체조를 하게했다. 나와 친구들은 그 체조를 무척 따분하고 귀찮아했다.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재미없었던 체조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운동이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운동을 진정 즐기던 때가 있었으니, 바로 체육대회 때였다. 농구, 배구, 코너볼-터바를 변형한 경기- 등의 다양한 종목과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교복 치마가 아닌 편한 체육복 바지를 입게 했고,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져다주었다. 지금까지 인생을 탈탈 털어도, 그 때만큼 운동을 즐겼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억지로 하는 재미없고 힘든 운동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는 신나는 놀이였다.

그러나 거칠 것 없이 교실에서 마구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던 여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녀 공학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땐,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남녀 분반이긴 했어도,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면 꼭꼭 커튼을 쳐야했다. 중학교 때는 땀 뚫고 돌아다니던 운동장이 다시 남학생들 차지가 됐고 축구공 공포증이 되살아났다. 여중시절 그나마 땀 뚫고 즐기던 고무줄도 남자반과 같이 체육하는 날에는 '민망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 어찌 다 큰 땀 먹고 고무줄을 넘고 있으면 남학생들은 무슨 구경거리 보듯 했다. 1년 중 최대의 행사였던 체육대회 때는 농구하는 남학생들한테 체육관을, 축구하는 남학생들한테 운동장을 다 내어주고 한 쪽에서 또 그 장애물 달리를 했다. 그것도 팔자루 속에 들어가 경충경충 뛰는 모습이 우스워 보인다고 출전하는 여자애들이 없어서 경기가 중단되고 없어지고 하는 형국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남아 돌아가는 힘을 좀 쓸 수 있는 건, 체육대회의 영원한 테마 - 줄다리기 정도였다.

사태가 이정도니,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이고 할 거 없이 틈만 나면 공을 차고 철봉에 매달리는 남자애들과 달리, 3학년이 되자 우리는 체육시간 까지 반납했다. 바람이 많이 불어 공이 제멋대로 가는 짜증나는 날씨에 배드민턴 재나 가끔 휘두르면서-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 소리 들어가면서- 남자 반 배구 대항전 에이스 멤버가 누구라더라 하는 소문이나 듣고 있었다. 그 때는 그게 당연했고 체육하고 땀을 뼉어 마땅찮아 따나는 게 싫었다. 남자애들은 수돗가에서 뒤통까지 벗고 등목하는 마당에도 우리는 가만 앉아있어도 따나는 한여름 이외에는 불평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곤 대학에 와서 여전히 창공을 가로지르는 공을 피해 다니고, 혹시 비누냄새 대신 땀 냄새라도 풍길까 걱정한다. 남학생들은 축구하면서, 혹은 군대라면 누구나 편다는 5km에 겁을 먹고 교양체육은 C 맞을 까봐 수강 신청도 못한다. 이렇게 운동은 지리지 안하거나 혹은 못하면서 살릴까봐 걱정하는 이중적인 모습까지 겸비했다.

일상의 재미를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즐기고 싶어도 이제는 너무 멀리 왔나하는 생각이 든다. 제도권 교육 아래에서 운동과 항상 거리를 뒀아왔던 여학생으로서의 지난날이 솔직히 원망스럽다. 그 수많은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서 땀글었으면 정문에서 연희관까지 논스름으로 째짜게 걷는다 해도 지금처럼 숨을 헐떡거리진 않을 텐데, 뒤늦은 아쉬움이 든다. 운동 '선수'로서 키워지지 않은 대부분의 여학생이 지금의 내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남학생들은 수돗가에서 뒤통까지 벗고 등목하는 마당에도 우리는 가만 앉아있어도 따나는 한여름 이외에는 불평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운동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바디타입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했던 재미없는 운동에서 한 발 물러서고, 학창시절 여자라서 직접 해볼 기회가 없었던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도 좀 부지런한 사람은 헬스나 요가를 하고 좀 운동신경이 있는 친구는 검도나 스퀘시를 즐길 수 있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것도 생각보다 흔치 않다. 운동하겠다는 결심이 제일 먼저 필요하지만 역시 이것들은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여럿이 즐기면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팀플레이와는 거리가 멀다. 또 이런 운동은 대부분 '살 빼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다. 그래서 오래 못가 운동의 효과를 맛보기도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운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니라 큰 맘 먹고 시도한 계획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운동이 너무나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돈 갖다 바치는 제스 댄스나 요가, 정적이거나 외로운 헬스나 달리는게 별로다. 하루 일과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 이런 잘 지켜지지 않을 계획을 짤 수 있는 것보다, 공강 시간이나 수업 후에 자유롭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운동을 즐기고 싶다. 체육대회 때 공이 무서워 피해 다니고 땀자루 입고 뒤통대기보다는, 하고 싶은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대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늘 응원석에서 고함지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체육대회는 나의 것-곧 여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운동의 가치는 나날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고, 한 TV 프로그램은 '운동이 운명을 바꾼다'고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도 한다. 그러나 거센 운동 열풍이 여성에

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여자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요즘 운동에 푹 빠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운동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헬스클럽에서 달리기 하고 바로 주저앉으면 엉덩이 커지니까 주의하라고 하면서 팔을 가볍게 하는 방법, 허벅지 살 빼는 방법, 심지어 등 살 빼는 방법까지 아주 부위별로 운동을 꼼꼼히 짚어준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여자연예인이

비만이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저렇게 바빠 말았는데, 팔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몸을 움직이고 싶다. 운동을 놀이로 삼고 가까이 두고 싶다. 그런데, 그 앞에 '살을 빼기 위해서'라는 꼬리표를 갖다 붙이니 갑자기 운동이 지루해진다. 계속하기가 힘들어진다. 살을 빼야하는 동시에 운동은 하기 힘들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미련함을 벗어던지지 못한 여성들이 내 주변에도 수두룩하다.

두 가지 모두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운동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바디타입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했던 재미없는 운동에서 한 발 물러서고, 학창시절 여자라서 직접 해볼 기회가 없었던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여자는 운동을 잘 못한다. 여자가 하는 운동은 따로 있다. 여자들은 운동보다는 다이어트를 한다는 편견을 방치하는 한 여학생들은 영원히 응원석만 지켜야할지도 모른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뒤통수로 날아와 눈물 빼던 축구공을 내일은 오른 발로 받아 한 방 멋지게 날리고 싶다. **See said**

by 이음



그녀의 작심삼일 여름방학 프로젝트

더더 여름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하나 둘 민소매를 입기 시작하고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 것을 보니 문제의 여름방학 프로젝트를 짜야 할 시기에 들어선 듯하다. 여름방학 프로젝트? 들모하자의 저작 강독 세미나도 아니고, 무슨 행사를 기획하는 프로젝트도 아니다. 어찌 보면 보다 질실하고, 은밀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어울려만적이어서 분열증을 일으킬 법하기도 한 요상스런 프로젝트이다. 대체 무얼까. "노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라고 아침의 2호선에서 몇 사람들이 읽고 있는 타블로이드형 무가지의 커버스토리는 딱하니 선포한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여 흘금거리며 신문문을 엿보던 나는 저 무시무시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제목에 오히려 답답해진다. 그렇다,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프로젝트를 짜야 할 시기가 내게도 돌아왔던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 따위-심지어 시간에 쫓겨 택시타기를 밥 먹듯 하는 요즘은 더더욱-는 해치워야 할 101가지 일거리 리스트의 맨 꼬트머리로 옮겨 간지 오래다. 그래도 '나 잊지 않았지?'라는 듯, 고개를 어느새 치켜드는 옛 기억들. 여성의 몸이 사물로 환원되면서 이중기준이 적용되고, 바라보여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에는 여지없이 불쾌해하며 반대하고, 온 국가와 공동체가 여성들을 다이어트의 화신으로, 몸짱 신화를 사수해야 할 자랑스런 (지극히도 모순적인) '달래며 말라쟁이'들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는 나는, 그러나 비겁하게 최근까지도 건강이라는 명목 하에 끈질긴 운동 프로젝트를 짠 바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일상적으로 자리잡아온 날씬이 강박관념은, 나로 하여금 가끔 줄넘기, 자전거, 윗몸일으키기, 아령 들기 등의 다양한 종목을 가끔 시도하게 만들었다. 물론 줄넘기는 신발장으로, 아령은 창고로 들어가고, 자전거는 팔레 건조대로 바뀐지 오래이긴 하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행복하고 게으른 삶을 포기하면서 역시 전 살과도 빼야해야 했던 나는 운동을 또 한번 시작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보였지만, 신기하게도 처음 몇 주간은 사차적응에 힘입어 온 동네를 40분 동안 조깅하고 또다시 20분 동안 자전거를 탄 다음 윗몸일으키기와 아령 들기를 짧게 하고 하루의 운동을 종료하는 스케줄을 반복할 수 있었다. 솔직히 그러한 일상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뛰는 것 자체가 무척 즐겁고 상쾌한 경험이었지만, 애초부터 뚜렷한 목적-다이어트-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동이니만큼 순수하게 즐기기도 '몇 분을 채워야겠다. 몇 킬로미터는 채워야겠다'는 식으로 점차 강박적이어만 갔다. 결국 아침 조깅은 늦잠과 갑자기 쌓인 여름방학 일거리들에 밀려 철회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등장한 것이 몇 년전 Zen과 요즘의 웰빙 붐에 2차적으로 편승하여 뜨게 된 요가 강습이다. 이번에도 나의 고민은 똑같다. "체력이 떨어져서 보충할 필요가 있어. 요가는 복식호흡에도 도움이 될테니 요즘 배우는 악기 생각하면 일석이조지. 게다가 헬스 가서 땀 흘리는 것보다 덜 과격하면서 천천히 할 수 있으니 게으른 나에게는 딱이야" 등등. 별이 잘 드는 세피아톤의 넓은 마루에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사람들. 얼마나 유토피아적이고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나도 돈과 시간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저 세계에 뛰어들어 끼어들고 싶을 만큼 한편 부럽기도 한 풍경. "정신과 육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자는 웰빙의 모토와 이상적으로 부합한다. 사실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스포츠센터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니, 여름에 요가를 한번 시작해볼까 고민하는 나도 어쩌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나쁘지만은 않을테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타이르고 있는 나는, 바로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핑계를 제공하는지 일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최면을 걸고 있다. 명백해 보이면서도 일상적으로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 가령 요가를 하면서 웰빙을 추구한다는 이들은 모두 여성들이라는 점, "몸짱 아줌마"(건강 이데올로기가 다이어트/여성의 이상적인 몸 만들기과 적절히 부합하면서 만들어낸 아이콘으로서의)가 과도하게 추앙받는 현상, 그리고 많은 선배 언니들이 틈만 나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 함께 헬스장에 손을 잡고 가는 것 등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기초체력이 너무 없어서, 근력이 모자라서, 요즘 많이 지치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한다는 핑계는¹⁾, 다이어트 강박에 오히려 둔감해지게 하는 효과적인 기회를 만든다. 내가 건강해지기 위

1) 핑계가 아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혹은 운동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공중과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생방송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전파들이 너무나 잘 미치는 것이, 순전히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일 것이다.

해 운동한다'는 선언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다이어트 기대들을 지우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비난이나 의혹이런 혹은 바웃는 듯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오히려 멋있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물성별적이다. 예전에 식이 조절을 통해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유행했다면 지금은 운동하면서 다이어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권유된다. 그래서 운동하는 여성은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칭찬받는 존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요구되는 운동이라는 것도 실은 이미 특정한 행태를 띤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성들도 헬스장에 가지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인 반면 여성들에게는 웨이트 트레이닝 권유가 '지양'된다. 왜? 근육 울퉁불퉁 생긴 여성은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육이 생기더라도 '적절히 풀어주어' 각선미가 넘치는 상이 아름답다고 인정된다.

분명히 지난 6개월 간의 과음, 불규칙적인 식사, 수면 부족,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그리고 오만가지의 스트레스는 운동의 필요를 절감하게 한다. 그것은 그저 생활에 지친 폐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겠다는 자가 정화 활동에서 비롯된 욕구인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택하게 될 특정한 종류의 운동과 특정한 길이의 시간 등이 내가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강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마주해야했던 남편함의 이미지의 홍수와 그것을 나 역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현대인으로서 "상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들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 아니 그로 인해 그동안 행해왔던 나의 수많은 여름방학 프로젝트들이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 텐가. 몇 주 뒤에 아마 엄마와 함께 요가 강습을 등록하러 가지 않을까 스스로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시트콤에서 여자 주인공이 개구리 같은 팔다리 움직임으로 과장하게 공원을 뛰던 모습이 생각나 피식 웃음이 난다. 거기서 그녀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조깅하는 친구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뛰지 않으면 운동이 재미없잖아." **She Said**

by 고동

진정한 의미의 운동, 건강, 다이어트?



예 정되어 있던 대담이 취소되고 대담 정리자였던 내가 글 하나를 꾸며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진정한' 운동, 건강, 다이어트라니. 운동과도 거리가 멀고 건강과도 거리가 멀고 '정직하고 본격적인' 다이어트와도 거리가 먼 내가 무슨 배향으로 그런 글을 쓴단 말인가. 잘 해봐야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의 '몸의 모양'에 초점을 맞춘 운동을 포함한 방법의 다이어트는 그만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도일까. 하지만 현실이란 그럴 않아도 어쩔 수 없게 되어있는걸.

내가 기억하는 한 내 몸무게는 언제나 표준 체중을 살짝 넘어갔다.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을 거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통통한 다리. 어릴 때 옆집에 살던 언니가 내 동글동글 통통한 다리를 보고 이진 문친 거라면서 풀어야 한다고 마구 때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프기도 했지만 꽤나 부끄럽고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 다리는 원래가 그렇게 생겼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더 살이 붙거나 빠진 적도 없이 그대로다. 고등학교 다닐 때 작은 엄마가 무슨 억하심정이었는지 지방 흡입이라도 해서 다리를 날씬하게 만들라고 했었고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지만 그 때라고 다리가 더 동글동글 했던 것은 아니다. 요는 나는 이 다리를 한 채로 20년을 살아와서 이제 특별히 무겁다거나 내 생활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는 말이다. 다른 친구들이 자기는 살이 찌면 불편하다느니, 느껴진다느니 해도 심 대 후반부터 결국 노이로제 비슷한 것에 걸려 그런 쪽으로 민감해지기 전까지는 얼굴이 터져나갈 것처럼 동글동글해졌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나도 옆에서 이런 다리에 어떻게 반바지를 입냐는 등, 치마를 입냐는 등, 졸업 앨범 단체 사진에 보니 네 다리가 제일 굵다는 등 하는 소리를 십 년 정도 엄마, 동급생, 동생 친구, 동네 언니, 작은 엄마, 외삼촌, 막내 고모, 막내 고모부, 셋째 고모부, 지나가던 학교 선배,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바보 같은 사람들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듣다 보니 결국 노이로제 비슷한 것에 걸렸다. 사는 데 불편함이 없었던 데다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했지만 꽤나 튼튼한 몸을 가졌다고 자부했었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다리와 팔, 그리고 곳곳에 붙어 있는 살들이 참을 수 없이 증오스러워졌다. 옷 가게에 갈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게다가 나는 키도 작다. 옷 가게에 가서 특히 바지를 살라치면 느껴지는 그 '보멸감'은 나를 쇼핑에서도 멀어지게 했다. 돈 굳어서 다행인가? 하하- 언젠가는 공연히 울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살들을 칼로 도려내고 싶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내 자신이 끔찍하고 한심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상 곳곳에서 나는 나를 겸연했다. 나는 나에게 십 년 동안 주절거렸던 다른 이들의 시선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거울이 없어도 나를 볼 수 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 옷차림 하나하나가 모두 보인다. 무언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 나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어디선가는 누군가의 귀에 대고 주절거리겠지.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행운'이 찾아 왔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렇잖아도 위장병 덕분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운동 한 번 안 하고' 책상에 앉아만 있어도 살이 찌지 않았는데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서 방에서 매일 땀글땀글 거리며 울다 보니 '고압계도' 저절로 체중이 줄어 든 것이었다. 게다가 허약해지기까지 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그 때쯤 나는 '건강한' 여자애들이 얼마나 '놀림'을 받는지 내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하던 참이었으니까.



그 뒤로 나는 그 '허약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사투를 벌여 왔다.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적은 없다. 원래부터 거리가 있었던 운동을 시작한 적도 없다. 단기간 줄넘기를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했을 뿐이다. 건강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은 '사투'의 일환으로, 나에게 그 몸무게는 허약함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따로 다이어트를 해서 유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다만 '지금처럼' 살면 되었다. 위장병에 시달리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아프고 기운 없는 채로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살면 되었다. 어쩌다 소화가 잘 되면 불안했다. 이러다 '건강' 해지면 어쩌지? 다시 '건강한' 몸무게로 되돌아가면 어쩌지? 거의 매일 어딘가가 아픈 상태로 허약하며 휴학을 입에 달고 사는 내게 부모님이 약이라도 해서 먹이려고 하면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 식욕이라도 좋아지면? '건강' 해지면? 사람들은 내게 '제발 잘 좀 먹어라'고 권하지만 나는 여자가 '잘' 먹을 때 그들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 잘 먹어서 '건강'해지는 순간 그들의 말은 다시 '그만 좀 먹고 (살을 뺄 목적으로) 운동해라'로 바뀔 것이다. 게다가 우습게도 이렇게 사는 나지만 아직도 몸무게는 '표준 체중'을 넘어 간다.

나는 건강을 몇 바퀴 먹었다. 입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는 게 최대 목표이지만 속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기운이 다 소진된 채로 비실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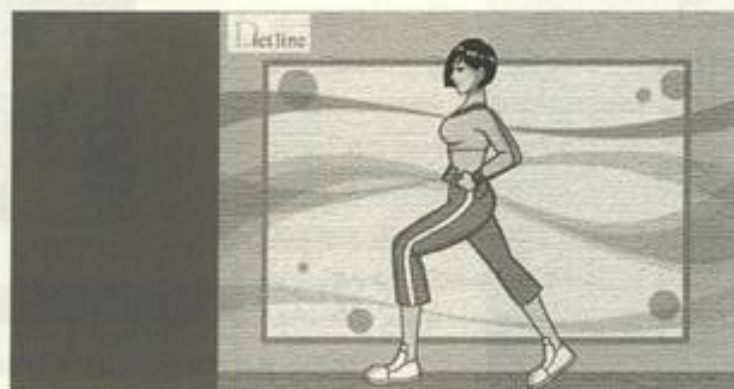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회는 여성이 '진정으로' 건강해지길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에서 '대(對) 여성적으로' 말하는 건강 담론은 웬만하면 안 듣는 게 좋다는 것이다.

무엇도 시작할 수 없다. 학교에 다니는 것만도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다. 나는 내 현실과 미래를 그 벌어 먹을 주절거리와 맛있는 해 놓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 대외적으로 '그것은 게으르고 튼튼하지 못한 내 탓이다.'

이런 내게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권한다. '건강을 위한' 운동. 나도 알고 있다. 내게는 운동이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건-여기에 대해서 쓰려면 또 산다미처럼 쓸 수 있겠지만- 나와 멀어져버린 운동. 해야겠지.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고작인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 점심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걷고 오라고? 공대 옆에서 농구하는 아이들처럼 농구를 하라고? 교양 체육이라도 들으라고? 아니면 헬스라도 하러 다니라고? 나는 땀에 폭 젖어 돌아다닐 '용기'는 없다. 이제 햇빛을 몇 분만 쬔어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옷들은 어찌선지 다 드라이클리닝 해야 해서 땀에 젖으면 돈 든다. 헬스 다닐 돈도 없다. 집하고 학교도 멀어서 어디다 등록해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남동생은 밤중에 돌아와서도 가끔 운동한다고 뛰쳐나가지만 똑같이 어두워져서 돌아오는 나에게겐 짝짝한 길을 5분 걷는 것도 공포다. 나는 스포츠 정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왜 그렇게 상대를 이겨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승자가 되는 것도 패자가 되는 것도 싫다. 집에서 하는 윗몸일으키기도 식구들이 다 잠든 시간에야 겨우 할 수 있다. 나는 부끄럽다.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또 다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게으르고 튼튼하지 못한 내 탓이다.'

오랜만에 본 텔레비전에서는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헬빙'이 '유행'이니 너나없이 '건강' 타령이다. 이번에는 무슨 비틀어진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한단다. 허리가 심하게 휜 사람, 디스크에 가까운 사람, 굽은 사람 등 거의 모든 사람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주로 회화화되는 것은 '조정란'이었다. 명색이 건강 프로그램인데도 허리가 휘어서 '안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조정란의 '굵은 다리'가 문제였다. 자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여자 진행자의 '정말로 약간 나온 배'가 문제였다. '안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도 바웃음을 사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었다. 건강은 나만 몇 바퀴 먹은 것이 아니었다. 건강을 설파하는 사람들조차 여성의 건강은 몇 바퀴 먹은 지 오래였다.

나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 운동, 다이어트가 무언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아마 내가 맨 처음에 쓴 뜬구름 잡는 소리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회는 여성이 '진정으로' 건강해지길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에서 '대(對) 여성적으로' 말하는 건강 담론은 웬만하면 안 듣는 게 좋다는 것이다. 나? 나는 물론 건강해지고 싶다. 비실비실하게 사는 것이 현재도 불편하지만 미래까지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이 본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예를 들어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와 무언가를 제거하는 방법. 물론 이보다는 내가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더 빠르겠지만- 건강해지고 싶다.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총출한 그물망 아래서 절망하려고 이런 글을 쓴 것은 아니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트악했던 클로리아 스타이넴의 <일상의 반란>에 나온 비실비실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이 또한 가부장제의 음모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마음에 와 닿는 나날들이다. **She said**

여름 방학에



〈왔다!〉 김미영

〈왔다!〉는 본격 개그 만화와 극화체 만화의 중간 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극화체 치고는 그림이 조금 '아름답지 못하다'는 면은 이러한 형식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지금의 그 개성적인 그림이 더 어울리는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연재하고 있던 잡지 〈Wink〉에서 5월 15일자에 완결되었으니 〈She Said〉 3호가 발간될 즈음에는 단행본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척, '웃긴' 만화죠.

〈왔다!〉는 작년 중여학생회 잡지인 〈Daydream〉에 한 번 소개된 적이 있는 만화입니다. (M병 치료에 관한 보고서'라고 기억하시나요?) 〈이갈리아의 딸들〉을 현대 학원물로 각색하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자, 지현, 만수, 현민이라는 중심인물 네 명이 꾸려가는 만화인데요, 한 마디로 말하면 겉모습은 똑같지만 성격들이 완전히 뒤바뀐 사회를 그리고 있다고 할까요. 이를테면 부계 혈통 중심이 아니라 모계 혈통 중심이고, 남학생인 현민이는 '공주님'을 기다리고 만수는 (남)성 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학생인 영자와 지현이는 그야말로 마초 콤플렉스, 수업 시간에 야한 잡지를 돌려보는 것도 여학생이고 'Playboy'지에는 정말로 'boy'가 실려 있죠.

이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하나? 이것이 바람직한 세상인가? 너희가 정녕 꿈꾸는 것은 이런 세상인가? 그야말로 만화군! 질문이나 불평이나 불만은 자읍니다. 맞아요, 만?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런 '현실'이 가능한지가 더 궁금합니다. 솔직히 같이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가상하리만치 제도로, 그리고 인식 상에서 다르게 취급하고 그것을 빌미로 차별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질문은 바로 지금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영의 다른 책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가는 원래 3등신의 캐릭터를 주로 한 개그 만화를 무척이나 맛깔나게 그려내는 분입니다. 다른 작품으로는 〈빌 테면 빌어봐〉, 〈야, 이노마〉 등이 있지요. 〈왔다!〉가 마음에 드신다면 나머지 작품도 찾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의 내용은 〈왔다!〉와 그다지 연관이 없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어느 신문 만평보다 나아보입니다.



〈papa told me〉 하루노 나나에 Nanae Haruno

〈papa told me〉는 정말 대여점에서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만화도, 인기가 엄청난 만화도 아닌데다 현재 26권까지 나와 있고 언제 완결될 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한 두 권쯤 사서 보기를 권합니다. 그림도 동화같이 예쁘고 유니버시티식이라 한두 권 봐도 뒤편이 미치도록 궁금해지진 않거든요. 아, 저도 팔팔팔팔 사서 모으고 있지요. 만화책은 금방 절판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장하고 싶은 책은 어서 사 두어야 합니다.

〈papa told me〉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 마토바 치세와 그 주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치세의 엄마 치구사는 치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치세는 죽 작가인 아빠 신키치와 함께 살고 있지요. 치세는 마법 같은 아이죠. 편견이 통하지 않는 아이랄까요. 그런 치세 주변에도 성차별적이고 '정상가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넘쳐납니다. 그래서 치세가 날이 갈수록 투쟁적인 아이가 되어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아이가 꾸려 가는 이야기도 물론 의미 있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조금 더 와 닿는 이야기는 치세의 고모인 유리코와 신키치의 담당 편집 기자인 키타하라, 그리고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20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차지하고 있는 유리코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으로서 혼자서 살아갑니다. 집에서 결혼하라는 압력, 회사에서 유언무언의 결혼 퇴직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되는 여자 후배들과 동기들의 좌절과 퇴직은 유리코를 종종 슬픈 기분으로 빠지게 하지요.

유리코를 비롯해 〈papa told me〉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딱히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살기'의 문제를 생활 속에서 겪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살 경제력이 없는 여성들은 취직의 고비에서 좌절하고, 어렵게 취직하여 혼자 살 경제력이 있는 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든-결혼이든, 승진 문제든, 계약직 문제든-계속해서 그 경제력을 포기하기를 강요당하지요.

작가는 이 외에도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아주 일상적이고 담담하게, 그러나 무디지 않게 그려냅니다. 물론 즐거운 일도 한 가득 그려 나가고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작품의 컬러 일러스트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 소품들과 액터 풍의 파스텔 톤을 사용해서 일본 배경이건만 '유럽의 가정집'이라는 느낌이 나는 만화지요.



한혜연의 만화들

한혜연은 만화가로서는 드물게, 순정 만화가로서도 드물게 20대 여성의 이야기, 여성 성소수자 이야기, 그리고 여학교 시절 여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작가입니다. 공포 만화를 주로 하던 시점을 지난 후로는 어느 한 작품에 치우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구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책이 절판되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단편집인 〈그녀들의 크리스마스〉와 〈어느 특별한 하루〉, 〈아마존〉 정도이지요. 물론 저는 중고 서점을 뒤져서 〈금지된 사랑〉과 단편집인 〈Fruits

Cocktail도 구매했지만요. 현재 한혜연은 격월간 만화 잡지인 (오후 Owho)에 단편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혜연의 만화는 무언가를 주장하지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다만 공식 기억, 공식 역사에서 삭제된 여성의 경험을 그려 낼 뿐이지요. 흔히 순정만화가 여성에 의해 창작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그것 전부가 여성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고 믿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호에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여성의 경험은 공식 역사로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기억 속에서도 각색되기 일쑤이지요. 그 안에서 여성의 경험은 아주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한혜연의 만화가 (슬프게도) 희소성을 지니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데 지금까지의 나에게 대한 기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구성해 냈을 테니까요. 여성성으로 일컬어지는 가치들, 또 여성의 경험들을 부차적이고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곳에서 여성이 스스로에게 자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한혜연의 만화는 부정적으로 구성되었던 여성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그녀의 만화를 읽고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피플〉, 〈사춘기〉 이진경

이진경은 〈피플〉의 머리말에서 〈피플〉에 대해 페미니스트를 그리고 싶었던 만화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페미니즘 만화를 그리고 싶었지만 그리고 보니 그것에 가까웠다고요. 〈피플〉과 〈사춘기〉의 부제가 각각 for my feminization girls 1,2인 것을 보면 그녀의 말뜻을 알 수 있습니다. feminization은 '여성적인

에너지를 품은 세대'라는 뜻의 조합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마 둘 다 상상하신타로의 만화는 아닐 겁니다. 〈사춘기〉는 또 하나의 부제에 있는 대로 '내 여자아이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회고록'이고 〈피플〉은 가상의 도시인 c-town을 배경으로 해서 여성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려낸 이야기이니까요.

〈사춘기〉는 90년대 초반의 대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서 동휘, 선옥, 지영, 인형은 서로의 기억 속에 있기도 하고 우연히 만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로와 그다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 나갑니다. 앞서 이야기 한 한혜연 만화의 여성들과는 달리 이들은 밖에서 보기에 다들 조금씩은 특이한 인물들입니다. 모두 성격이 다르지만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지요.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무표정하게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피플〉은 매우 현실에 가깝지만 그래도 가상의 도시를 설정해서인지 주인공인 에니나 그 주변 인물들이 〈사춘기〉의 인물들보다는 무척 힘차 보입니다. 〈사춘기〉의 여성들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 소외당하고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면 〈피플〉의 여성들은 그 현실 안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진지하게 부딪히고 부수며 현실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까요. 에니는 30대 초반의 조각가로서 '거대 부업'이라는 전시회를 하고 맥스는 경찰로서 오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살아가지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플〉과 〈사춘기〉 모두 2권까지 나왔는데 정기 연재작이 아니라서 다음 단행본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진경은 매우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다소 실험적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만화를 많이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일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키운 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진경은 '새'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홈페이지에 가면 개인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세요. www.saysd.com

by몽이 몽이마담을 자주 한 이유에 쓰는 사람이
계는 표현을 한 사람 종이 냄새, 개미, 향을 좋아
한 글쓰기와 만화는 이미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고
꿈은 무엇보다 쉬워 한다고 생각

서울대여성주의차커언론주이쌍스 그녀들의첫번째단행본 주이쌍스 그녀들의...심장



미래를 약속하는 연애는 못해! 진정한 사랑은 뭘까? 그 사랑이 아름답고 지고 지순하다고 해서 누구나 그 사랑에 응해줘야 할 이유 따윈 없다. 옷에 몸을 맞추는 여자와 그것을 권하는 사회 우리 엄마는 내가 뽀뽀도 못 해본 줄 알거야. 정작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으면서 애꿎은 내 머리를 쓰다듬던 사람들은 나의 부모였다. 나는 비주얼이 싫다. 여자의 삶에 관심을 갖는 자, 누구인가 변태미니미에 가위를 들 이대자. 엄마이혼했어? 결혼은 로또이다. 아빠는 남자를 좋아해. 소녀, 그 불안정한 발랄함에 대하여 브레이더 이야기 페미니즘은 당신을 위로한다. 〈오아시스〉, 악어의 눈물(하드보일드하드),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 그 여자의 사랑〉, 냉미남 아리아의 속사정(이야기해, 다시 살아나) 여성은 남성의 슬픔을 위한 존재?

〈주이쌍스, 그녀들의 심장〉 본문 중

날카로운 비판과 담담한 일상의 이야기. 매력적인 글쓰기란 이런 것이구나. 주이쌍스는 여자의 이야기 - '보석'이다. - www.saysd.com 제 10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치열하게 단어를 고른 기억이 있는 여성들에게, 차라리 침묵하는게 낫다는 생각으로 혼자만의 아픈 일기를 쓴 적이 있는 여성들에게 주이쌍스를 만나는 일은 근사한 기쁨을 건네 줄 것이다. - www.saysd.com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재(책순) 편집장

5월20일 주이쌍스 단행본 주이쌍스, 그녀들의 심장
이출간됩니다 전국유명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만나
나요 도서출판세이북스 정가 8500원

주이쌍스, 그녀들의... 심장

글을 쓴다는 것이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글 전면에 냉소를 좌악, 부여놓았으면서도 사실은 나 감정에 푹 젖어있어, 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아슬아슬하게, 때로는 약간 유치할 정도로 감정을 과잉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꼭 조였다는 것을 느끼면서 때마르게 갈겨대고, 어디서 들어봤을직한 말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동시에 문장은 막힘없이,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거의 완벽하게 지키고, 그래, '쿨한' 글을 쓰고 싶었다. 세상이야 벼락을 맞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 시끄러운 바깥과는 거리를 두고, 내 속에 파묻혀, 깊이 내려가,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웃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전혀 몰라지 않고, 그렇다고 쿨한 척 할 수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하고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까지 쓰고 있었던 껍질들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의 내 말들은, 전부 다 결만 번지르르하지 알맹이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을 나열해 놓은 데 불과했다는 것, 이것들을 한꺼번에 깨달았던 날, 도대체 이따위 쓰레기통에나 치박아야 할 소리들을 더 이상 자결해서 뭐하나, 싶은, 갑작스런 벼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쿵 통해버린 듯한 그 기분, 그리고 그 날부터 내게 찾아왔던 것은, 언어의 상실이었다.

한동안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의 생각들은 표면이 거친 나무막대에 감겨진 천들처럼 가는 울끼리 엉겨 있다가, 언어화되어 나오는 그 순간 결대로 흩어져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저 깊은 데서 무언가 치밀



『주이쌍스, 그녀들의... 심장』

어 올라오는 것을 참고 어떻게든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하면, 머릿속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그림이 만들어지곤 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말이 아니야. 내가 힘들게 말의 고리를 맞추고 있을 때, 이미 그 말은 저 앞에 가서 있어. 나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얼굴을 찡그리고 돌아가 버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입을 꼭 다문 채 마구 어지르기만 하던 나에게 다시 언어를 찾아 준 것은 여성주의였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다가가게 되면서, 다른 여성들의 글이 보이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나만 유독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반가웠고, 신비로웠고, 즐거웠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감사했다. 새로운 언어를 만나게 해 주심에, 여성으로서 나를 잃게 해 주심에, 그리고 예전의 내 모습이 그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였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런 부족한 모습마저도 긍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에, 지금은, 한동안 형체도 없이 너저분하게 퍼질러져 있던 머릿속 잡동사니들을 하나 둘 내다 버리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고민들을 채워 넣고 있다. 그저 침잠하기만 하던 예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역동적이고 씩씩하면서도 예전보다 마흔일곱 때는 더 진지해진 나를 만나기 위한 고민들을, 그리고 여성으로서, 여성주의자로서, 나의 언어를 다시 고안해내기 위한 고민들을.

『주이쌍스, 그녀들의... 심장』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나의 고민과 결을 같이 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주이쌍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발행된 『주이쌍스』에 실렸던 글에 새로운 글을 더해 만든 단행본이다. 동명 자치언론매체 『주이쌍스』는 2002년에 처음 만들어져 지난 2004년 5월까지 총 여덟 권이 발행되었는데, '여성의 목소리를 향유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라고 스스로의 지향점을 소개하고 있다(www.jouissance.pe.kr). 그림자춤, 쏘, 수시 아, 찌꺼, 살아보자, 시마모토, 야생파까지 등의 여러 필자들이 가족, 연애/트라우마, 여자친구/소녀, 예쁜 옷/몸,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때로는 아프고 아릿하게 풀어놓는다. 저기에 여성주의적 마인드에 기반한 여러 기획들과 무자녀 혁명, 하드보일드 하드러, 낙하하는 저녁, 백년만의 고독, 라이딩 위드 보이즈, 그녀에게, 안느 트리스테 등의 영화와 책에 대한 비평글까지 더해져 있다.

사실 (잡지) 『주이쌍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론'의 이미지와는 상당 부분 다르다. 우선 언론 매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시의성'과 「상대적」 객관성 따위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초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이슈를 던져주는 기획과 구성으로 인해 '전투적인 글쓰기'라는 평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주이쌍스는 보다 자기 지향적이고

돈구름 잡는 '스케일 큰' 얘기보다는, 소곤소곤 농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정치적이고 진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여성 개인의 경험도 '완전한 개인'의 것은 아니기에, 너의 경험은 내가 경험하는 그것일 수 있으며, 나의 느낌은 내가 느끼는 이것일 수 있기에.

그녀들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때론 우리 나이 또래의 여대생들이 그렇듯이 적당히 명랑하고 발랄하기도 하지만, 그런 발랄함 역시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언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을만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든가. 바깥의 시선에 의해 주어진 '20대 여성'의 모습을 집어던짐으로써 그녀들은 전복을 도모한다.



주 이 쌍 스 그 녀 들 의 ... 심 장

일상을 담아내는 글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며, 그 외에 인터뷰, 영화평, 서평, 음악평, 만화 등의 고정 코너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일반적인 언론의 개념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이게 언론이라고?'라며 입술을 뻗죽 내밀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존의 언론이라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이며, 누구의 이야기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과연 그 속에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이야기라 할만한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함께. 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기 지향적이고 일상을 소재로 하는 글에 대해서 '이건 너무 가볍지 않아?'라고 폄하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인지, 왜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소하여 부끄럽고, '사회' '정치' '이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게 있고 당당한지. 어쩌면 이것은 여성과 남성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이분화된 구획 속으로 집어넣고는 각각의 영역을 두 개의 페인트로 발라 버린 후 '여기와 저기는 완전히 다른 곳이야. 여기 있는 애들은 저기로 넘어가면 안돼. 저기 있는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니까 조심해야해!!'라고 여기 있는 애들에게 말하고 있는 코미디의 재판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돈을 잡는 '스케일 큰' 얘기보다는, 소곤소곤 농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정치적이고 진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여성 개인의 경험도 '완전한 개인'의 것은 아니기에 너의 경험은 내가 경험하는 그것일 수 있으며, 나의 느낌은 내가 느끼는 이것일 수 있기에.

그렇게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이 생겨난다. 자기치유를 위해서 페미니즘에 기대었고, 덕분에 '새 하늘을 보았다'는 수시아의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술자리와 남성 문화 모두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적'인 문화가 된다는 메리메리의 글에 아아, 뭔가 좋은 놀이가 없을까 고민도 해 볼 수 있다. 친구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가 소수의 '길고 가늘고 작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옷을 기성복 회사들이 만들어냄으로써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여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단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 때문임을 성토했는 쉘의 글이나, 채팅방에서 겪은 개떡같은 대화를 예로 들며 '우리 나라에서 볼수록정다수를 상대로 마초를 만나지 않을 가능성은 새발에 피도 안된다'고 단언하는 야생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짜증나는 경험을 잠시 떠올려 보고 '그래, 정말 놀고들 있어!!'하고 함께 신경질내볼 수도 있을 것이다.

Jouissance



이 책의 필자들이 모두 20대의 여성(주의자)들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볼만 하다. 20대, 클 만큼 컸다고, 알 만큼 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해도 여전히 아직 어리고, 경험이 너무 적고, 깊이가 부족해서 미심쩍다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 심지어 '어머니가 되지 않는 한' 성숙하지 못하다고, 인생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여성들. 그렇게 미숙한 글들을 공들여 읽을 필요가 있을까, 어디 한번 훑어나 보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나이를 먹은 후의 모습은 완성이고 20대의 모습은 미완성일까. 변화의 결과만이 온전하게 의미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모습들은 모두 부족한 것이라 여기는 기존의 직선적이고 단선적 관념은 당연히 불공평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점점 나아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과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터 나의 모습이라 여기고 긍정하며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이 여성주의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그녀들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때론 우리 나이 또래의 여대생들이 그렇듯이 적당히 명랑하고 발랄하기도 하지만, 그런 발랄함 역시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언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을만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든가. 바깥의 시선에 의해 주어진 '20대 여성'의 모습을 집어던짐으로써 그녀들은 전복을 도모한다. 이제까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고, 너희가 하는 그따위 이야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듯, 이렇게 여성으로서, 혹은 여성주의자로서 겪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너와 내가 '여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단점, 한계, 장애물이 아니라 너와 나를 함께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되어 준다. 어쩌면 이것이, 자매애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 당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해 낼만한 말을 찾지 못하고 먹먹해하고 있는가. 가슴에 무언가 이만큼 차오르기는 했는데 바깥으로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는가. 실타래처럼 칭칭 엉킨 당신의 언어가 더 이상 당신의 경험을 설명해주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성급한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당장 세워내 보려고 스스로를 쏘아대지 말고, 가슴 저 깊은 데 있는 우물 밑바닥으로부터 힘들게 힘들게 퍼올려 당신에게 조심스레 건네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는지.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느긋한 마음으로 들어 보는 것은 어떨는지. 우리는 분명 서로 많이 다르지만, '여성' 이기에 아주 조금은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해 보면서, 조용히 미소지어 보는 것은 어떨는지.

She Said

by 늘

여성학

졸업한 여성주의 자 세 상 살 기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졸업 이후의 삶이 생각하면 불안했다. 이제는 매달 월급을 받지 않는 삶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언젠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을 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돈을 버는 내가 좋다.

돈 버는 일상

나는 어려서부터 돈 모으는 것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내내 돼지저금통을 꼭꼭 채웠다 꺼내기를 반복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만들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만 좋아했지 돈을 버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기껏해야 용돈을 아껴 쓰는 소극적인 방법이나 어머니가 건네준 학원비를 꿀꺽하는 야비한 방법으로 통장을 채워 넣었을 뿐이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몇 달 동안 과외를 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직접 돈을 버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다. 돈을 위해 나의 지식이나 노동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다. 그래서 스스로 용돈을 벌여 쓰는 친구들과는 달리 나는 계속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아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잘 사는 집 자식이거나 용돈을 유달리 많이 받았던 것은 아니다. 적은 용돈을 조금 저금까지 하느라 나는 판순이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돈을 버는 훈련도, 돈을 쓰는 훈련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셈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졸업하고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며 계속 용돈을 타서 쓰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직장 여성이 되어 회사에서 노동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벌고 있다. 진로를 바꾸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4학년에 되면서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돈을 모아서 뭘 어찌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돈을 벌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십 수 년 간 학생 신분으로 유유자적하던 나는 그렇게 해서 노동자가 되었다. 막상 노동자가 되고 보니 나의 노동을 판다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평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만한 것도 아니더라. 대학에 가기 전에는 대학 생활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만 막상 대학에 입학하면 그것이 답답한 일상이 되듯 노동도 그렇게 나의 일상이 되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내가 돈을 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신기하기만 했는데 어느새 1년이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월급날에도 무덤덤하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도 외국인 회사도 아니라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다.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인데 세금과 연금을 떼이고 나면 더 적어진다. 게다가 회사 사람들의 경조사라도 있으면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또 돈이 빠진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에게 얹혀살고 있어서 생활비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월급이라도 불만은 없다.

월급을 받으면 일단 얼마를 뚝 떼어 적금을 붓고 나머지는 교통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학생 때처럼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돈을 더 적게 쓰게 된다. 예전에도 돈을 막 쓰는 편이 아니었는데 회사에 다니면서 지출이 오히려 더 줄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조금씩 꾸역꾸역 통장 잔고를 늘려 갔다. 이 돈으로 서른이 되기 전에 대학원에 가고 마흔이 되기 전에 세계 일주를 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희망일 뿐이었다.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뜻이 맞는 여자 친구들 서너 명이서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집.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집을 산다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일인가. 그동안 제법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수도권 집값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됐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은행 이자는 자꾸 줄어드는데 월급을 한 톨도 안 쓰고 고스란히 저축한다 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어 보였다.

나는 집을 못 사더라도 전세 값이라도 마련하려면 재테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신문 경제면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긴 했지만, 서점에 가서도 「150만원 월급으로 따라하는 10억 재테크」, 「집도 사고 돈도 버는 부동산 투자 완전정복」 같은 화끈한 제목을 가진 책에 눈길이 갔다. 하지만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종자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액수라 내가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은 별로 없었다. 그저 꾸역꾸역 저축을 계속하는 수밖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돈을 벌고 저축하는 생활을 반복하겠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나는 결국 집을 사서 친구들과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모르겠다. 나는 그저 오늘도 일상적으로 돈을 벌 뿐이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졸업 이후의 삶이 생각하면 불안했다. 이제는 매달 월급을 받지 않는 삶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언젠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을 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돈을 버는 내가 좋다. **She Said**

'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은 백만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제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다. 하지만 '예방'의 차원에서 주로 이야기 되는 내용들을 보다보면 세세한 내용도 문제이거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예방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이 있는 것이다.

-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린다.
-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둔다.
- 평소 자신의 주장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마신다.
-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닌다.
-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둔다.¹⁾

일단, 이 익숙한 예방의 문구들을 보다보면 예방 교육의 대상이 '피해자' 혹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폭력이란 '주의하지 않은 여성, 조심하지 않은 여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편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방교육의 태도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피해자가 잘못된 것이며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숙박업소에 '꽃아간' 피해자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의 주장이 넘어서도록 '과음'한 피해자가 잘못된 것이다.

택시를 탈 경우에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둔다거나, 숙박업소의 비상구를 살펴둔다거나 평상시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지내는 것은 나름대로 '효용'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성폭력은 일상 위의 제시한 모든 항목을 착실하게 지킨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저 친절한 항목들을 잘만 지키면 예방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성폭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연히 발생하곤 한다.

게다가 위에서 제시한 상황들은 '낮선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할 뿐이다. 가족에게, 친척에게, 애인에게, 친구에게 겪는 무수한 성폭력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폭력은 술을 안 마셔도 발생하고, 의사표현을 배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 분명히 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해도 발생한다. 일정 정도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이 될 수는 없다.

이랬을 때부터 '귀가 달도록 들어왔던 딸'이 있다. 밤늦게 돌아다니니 말이라, '위험하다...' 등등등의 이러한 말들에 나는 스스로 '꽤 컸다'고 생각하던 그 나이부터 열심히 저항해왔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넌 여자잖나'와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가'였다.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규범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 그 효과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7) 이 강력한 예방책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영역과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신체의 자유와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매우 침해되고, 억압받고 있다. 거기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밤늦게 돌아다니 죄로 책임을 여성에게 되돌리기까지 하는 엄청난 효과까지 발휘하는 것이다.

게다가 숙박업소는 어떠한 구실로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문장 자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가두어 놓을 뿐이다. 이는 성관계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게다가 어떠한 구실로도 숙박업소를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니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와 이야기의 시작은 다르나 결론은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역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숙박업소를 거이 꽃아간' 피해자의 잘못으로 원인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함께 숙박업소에 가서 '잠을 잔다'고 해서 '성관계'가 있는 것은 혹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관계'와 '성폭력'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한 주의 판결에 의하면 성관계 도중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은 성행위를 계속 할 경우는 성폭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어떠한 여성이 자신이 성관계를 갖기를 원해서 파트너와 함께 숙박업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성폭력을 당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숙박업소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떠한 문화가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성폭력이란 무엇을 침해하는 폭력인지, 성폭력의 피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성폭력이 왜 쉽게 발생하고 있는지, 성폭력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어떻게 기를 것인지,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가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와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성폭력 예방에 보다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를 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마땅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 것 자체가 성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겠다. **See Said**



아버지를 위한 판타지 〈효자동 이발사〉

효자동 이발사는 그야말로 잘 만든(well-made) 영화다. 안정감 있는 스토리 전개와 탄탄한 극의 구성, 문소리와 송강호 라는 캐스팅은 훌륭했고 특히 문소리의 연기는 나날이 늘어만 간다. 하지만 이 영화가 가슴빠근하게 찬미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영화가 한국근대사를 조망하는 방식이나 구성의 훌륭함에 전주어 점잖은 불편함을 남겼다.

대통령과 같은 동네 효자동에 사는, 대통령이라면 그저 좋은 본인 줄 아는, 아마도 대통령을 욕하는 법이라곤 배워본 적이 없을 듯 싶은 효자동 이발사 성한모네 가족사는—더 정확하게는 송강호와 그의 아들 부자의 인생사—소용돌이 치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영화는 70년대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사건들과 이발사 아들의 인생을 일치시키면

서 암울했던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보여준다. 효자동이라는 동네, 정치적 의식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동네 이발사,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은 70년대를 살았던 이들의 일상, 그가 대통령의 전속 이발사가 된 것은 참으로 우연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무엇이기도 했다. 독재 정권의 역사는 그렇게 그들이 의식했던 그렇지 않은 개인의 삶과 분리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 개인들의 삶을 권력의 발아래 딛고 설 수 있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 여겼을지 모를 독재 정권의 권력과 억압은 개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걸을 수 없게 만들었고 본 것도 못 보았고 하지 않은 것도 했다 모르는 것도 안다 하게 만들었다. 영화는 암울했던 한 시대를 의도적 상징들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린다. 역사 속에 인물이 서 있다기 보다는 영화 속 인물의 눈을 통해 보이는 시대를 담아낸다. 영화가 말하는 시대에 대한 고발이란 그 시대가 피명하게 했던 이들의 삶에 시선을 돌리고 아무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후반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중심이 되는 마루구스병 사건을 기점으로 영화는 노골적으로 역사 속에서 힘없고 소심했던 아버지에게 바치는 영화가 된다. 아들은 자라 겁먹은 아버지 때문에 간첩과 점선했다는 혐의로 전기고문을 받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

어 집에 돌아온다. 마침내 박정희의 죽음 후, 전두환 정권에 다시 이발사가 되기를 제안 받은 그(실제로는 새로운 대통령의 머리를 깎았다한다) 아들을 못 견제 만든 그들에 대한 분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12년간 한결같이 모시던 대통령을 잃은 때문이었을까, 스스로 자초했던 아들의 수난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의 이발사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걸기 시작한다.

그가 새 대통령 앞에서 말실수를 하고 흠뻑 맞은 채 집 앞에 버려진 후에 아들의 병을 낫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복이 독재 정권의 역사와의 어떤 단절과 선긋기 이후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중반 이후 영화는 아버지의 넓은 가슴 파묻혀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는 듯 보였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아들을 들쳐업고 산으로 바다로 옹하라는 의원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으로 생동 맞다고 나는 생각했다. 영화는 그 지극한 부성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6,70년대를 살았던 아버지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순박하고 헌신적이었던 부성, 무려한 가장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아픔을 낮게 하기 위해 가슴빠근한 부성을 발휘하고 영화는 그 아버지들을 위한 노래가 되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마지막 장면, 영화는 아들과 아버지의 아니 아버지를 위한 판타지로 마무리했다. 영화는 판타지를 택함으로써 이전 시대와 간접화법으로 이별한다. 역사가 짓밟고 지나가 자리에 남겨진 개인의 삶을 본다는 것, 섬세한 눈을 필요로 하는 그 작업에서 영화는 아버지에게 대한 낭만적 사랑과 그리움으로 점차 힘을 잃었다. 영화는 성한모라는 한 개인의 눈을 통해 시대와 세월을 보겠다 했으나, 아버지 세대를 칭송하는 그 방식이 나는 끝내 불편



했다. 영화는 한 개인의 눈을 통해 역사를 보겠다던, 그 역사 속에 살았던 개인의 삶에 주목하겠다던 기획의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통한 역사를 구성해 내는데 열중한다.

영화는 한국 근대사 속에 서있었던/있어야 했던 이들의 삶의 곁을 오히려 흐릿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성애를 칭송한다.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해져야만 했던 남성적 권력을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다시 착하고 순박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영화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부재하다. 더 큰 아버지로서의 국가 권력, 그 국가 권력에 의해 휘둘리면서도 아들을 보살폈던 아버지의 따뜻한 부성, 나에게서는 그 두 가지 모두가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때문에 영화가 더 가슴 따뜻하고 정해질수록 나는 난감해졌다.

책략 없이 상상하길 좋아하는 나는 연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틈을 타 차라리 어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고향에 따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잠시 면도사로 일하러 왔다가 이발사의 아내가 된 김민자에게 그 시대는 어떤 의미였을지.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들은 이렇게 위안 받을 영화도 위안하려는 이들도 많은데 지워진 당산을 위한 노래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She Said**

by 이갈 연세대 문학학 석사과정



말은 누가 못하나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주의를 고민한다면, 남성들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주의를 고민한다. 아니, 고민하는 척 한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마초'라는 말은 엄청난 치명타이기 때문에, 주위의 여자애들은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한다.

아는 사람이 있는 과반이 그다 많지도 않지만, 벌써 한 학기 동안 세 번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¹⁾

실제 해결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고민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드는 생각은 수많은 반성폭력 운동, 여성주의 활동은 성폭력 '예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 여성주의 담론이 정말 잘 생산되고 있는 것 같은 반에서조차 실제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는 남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고, 그 아이들 역시 사실은 가해자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몇몇 남학생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며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대다수의 남학생들은 여건에 따라 '조심할 곳'과 '조심할 필요가 없는 곳'을 구분하는 눈치만을 빼온다. 반성폭력 운동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소수 남성들의 사고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뿐이다.

내가 있었던 과반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었던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1학년 때 다른 단대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음에도, 그것은 과반에서 농담거리로 스쳐갔을 뿐,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여성주의, 반성폭력 세미나는 줄기차게 이어졌고, 새내기들은 경험이 없는 '지식'만을 배워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의 동의 기반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면 그 과반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생겨났고, 다른 과반의 여성주의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학년 말, 새터를 준비하는 1학년들과 여성주의 세미나를 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공간에서, 다음 후배들을 받게 된다고 나선 남자아이들은 여성주의가 뭔지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일년 동안 배운 것은 '여성주의에 대해 여학생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는, 2학년들에게 '들어주는'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세미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건 사실 그 학년 남자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동기나 선배 남자아이들을 볼 때도 그런 인식의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여학생이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남학생들의 행동거지는 눈에 띄게 달랐고, 더욱 문제가 되

¹⁾ 이 문장은 그것이 단지 내가 아는 아라는 의미

있던 것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친하다는, 혹은 친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모두 묵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건 남학생들만이 아니라 여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결과는 일년 후 새내기맞이에 나선 남자아이들이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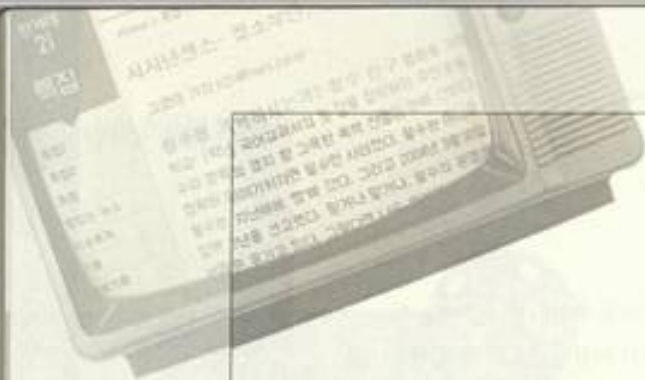
수많은 가해들은 친하다는 이유로 무마되었다. '친한 사이끼리 이러는 게 무슨 성폭력이나'라는 분위기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연했고, 마치 여성주의는 일상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술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자애들이 다리를 펴 벌리고 있는 것은 보기 싫다. 라고 세미나에서 열심히 말하는 여자애들과, 그럼에도 전혀 지적받은 적이 없는 남자애들, 즉, 일년 후 그들은 '이러면 안돼요'라고 새내기들에게 말해야 하는 행동들을 자신들이 계속해왔고, 자신이 아는 어떤 여성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평소에 성별을 가릴 것 없이 다들 같이 하던 행동들이 새내기들과의 공식 행사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당황스러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 과반은 자보나 행사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성주의를 이야기했고, 여성주의 담론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과반으로 칭송받곤 했다. 마치 그 공간에서는 성폭력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는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정말 슬프고 더러운 말이지만, 이런 현실에서는 차라리 성폭력 사건이 자주 공론화되는 공간이 보다 여성주의적일 가능성이 높다.(모든 공간이 여성주의적이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우울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으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성폭력이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러므로 내 행동에 대해서는 그다 반성 따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것은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박과도 같은 '정치적 올바름'과도 연결된다.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정치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여성주의를 앞장서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정치적으로 매우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 많은 여성들이 여성주의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마치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하듯, 거창한 이론 혹은 다른 공간의 일들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놓고 스스로에게 호소해한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여성주의를 중요한 투쟁 중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해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즉, 같이 여성주의를 고민해도 그 시작 자체가 이미 다른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주의를 고민한다면, 남성들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주의를 고민한다. 아니, 고민하는 척 한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마초'라는 말은 엄청난 치명타이기 때문에, 주위의 여자애들은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한다. '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남자아이들은 하나들 김규형이 되어가겠다.

정말, 남성들에게 그나마 여성주의를 고민하게 만들려면, '가까운 사람' 혹은 '본인'이 가해자임을 인식시키는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적인, 거부장제, 신자유주의 여성 억압 어찌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일한 길이자 가장 제대로 된 길이기도 하다. **She Said**

by 이스트
어쩌다 이편으로 굴러 들어와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사고 정치된, 소심하고 편협하고 게으른 남자아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자보 놀이와 편집 똑같이 따라 하기 마냥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알기

상반기 대표 워스트<시사 년센스>

벌써 이번 she said가 1학기 마지막 호란다. 오오, 2학기에 만나요~라면서 손 흔드는 분도 보이고, "뭘! 벌써? 방학때도 계절학기 듣는 학생들을 위해 내줘야 하는 거 아냐?"라고 따지는 분도 보이고, "헐, 난 이거 참보는데, 마지막 호라니!"라며 어리둥절하는 분도 보인다. 으흐, 하지만 역시 가장 곤란한 분은 학관 앞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she said에 눈길도 안주고 확 지나치시는 저분과 한 장 책 넘겨 보고는 "쿠폰북 아니잖아~!"라면서 다시 책 집어던져 놓으시는 저분이다. 안타까운 아~마~음~ 가실제 없애라~ 부디 2학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she said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 살짝 가져보면서, 이번 호 글도 정신없게 시작한다. 카카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드리겠다. 헐, 웬 퀴즈? 안그래도 수업시간마다 퀴즈 봐서 미쳐돌아버리겠는데 무슨놈의 퀴즈야!!! 라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보시라. 문제는 다음과 같은 퀴즈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다.

- 귀는 귀인데 못 듣는 귀는?
- 말은 말인데 타지 못하는 말은?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으흐, 너무 쉽다. "년센스 퀴즈" 당. 동. 당~!!

그렇다면 '년센스'란 무엇인가? 사전을 뒤적여 보자. <무의미한 말, 허튼소리; 어리석은 생각...> 등등 그닥 좋지 않은 말들이 꽤 뜬다. 하지만 저런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일 뿐

이고, 일상 생활에서는 웃기는 이야기, 유머, 농담 등의 유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는 년센스, 혹은 유머의 진정한 가치는 발상을 뒤집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며, 그저 웃기고 마는 회화화보다는 짙길거림 속에 칼날이 번득이는 풍자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막강한 힘을 재밌게 휘두르는 못된 애들을 웃음 속에 감춰진 바늘로 콕콕 찌러주는 것은 꼭꼭 필요하다. 현실의 년센스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애들이 년센스 속에서마저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얼마나 짜증나겠는가.

그런데, 그다지 웃기지도 않으면서 보는 이를 기분나쁘게까지 하는 년센스가 있다면, 이를 어찌해야 할까. 그냥 '예이 재미없어~...'라고 투덜거리고 잊어버리기엔, 너/무/나 <년센스> 딱한 년센스라면 말이다... 바로, 한겨레 21에 실리는 <시사 년센스>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으로 4월 7일(민주당 대표였던 조순형씨와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추미애씨의 갈등이 매우 첨예화되고 있던 시점이다)에 쓰여진 <젓소부인, 추미애를 위하여...>를 전라하여 인용한다.

사실 추미애 의원은 정말로 싸가지가 없다. 전적으로 조순형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그래서 둘의 만남은 늘 아슬아슬해 보인다. 나는 그 두 사람을 TV 화면에서 볼 때마다, 조순형 대표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 조마조마했다. "예, 며느리가..." 고집센 시아버지와 한집에서 살아야 하는 며느리의 고통, 추미애 의원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예로비디오'를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젓소부인에서는 추미애 의원 같은 전국의 며느리들을 위하여 신작 한편 출시하시라. 제목: 시아버진 재웠수?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대립할 수도 있는 두 정치인을 '싸우면 안된다고 여겨지는' 시아버지-며느리로 매치시킨다는 것부터 어이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설정은 이유가 어떨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대들면 안되지!! 라는 결론으로 통뻘어가버리고, 정치적 신념 때문이었던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이었던 뒤통간에 나이많은 선배 정치인과 대립했던(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정치인은 든든한 가부장제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시아버지 말 안듣는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로 그려진다. 게다가 뭐? 우리 잘나신 가부장들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시아버지와 한집에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예로비디오'를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라고? 예라이--

그렇다. 이런 식이다. 이 <년센스>는 100% 남성의 시선으로 그려진 년센스인 것이다. '꽃을 든 남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의 성인버전이라면서 '모출 든 남자(오악!!!)', '고추로도 때리지 말라(오악오악!!!)'라는 소리를 하지 않나, 한 탄핵 지지 집회에서 영부인의 학력을 거론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국모 시발' 사건이라고 명명하지 않나, 모나리당 대표인 모씨가 2대 대통령에 도전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를 '비(화)에대 여동생'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나(심지어 동창회 진입에 실패해도 속대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숙(명)에대'를 언급하기까지), 탄핵소추안(뭘, 이미 기각됐지만) 부표를 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다리 한쪽씩 들고 쉬어~' 하는 수컷 동물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나. 으으, 떠올리니 또다시 신경질이 확.

그렇지만 가장 끔찍했던 기사는 4월 28일에 실렸던 <맞고 살았다? 김미화도 때렸다>였다. 약 한달 전에 실린 기사이니 그다지 최근의 것은 아니지만, 처음 보았을 때의 당혹감과 치솟아오르던 분노는 아직도 여전하니, 이런 찜찜한 입술을 깨물며 인용한다.

한겨레 21 특집	표지/이슈 특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과학
Home > 특집 > 맞고 살았다? 김미화도 때렸다	2004년 04월 07일 목요일
시사년센스- 젓소부인, 추미애를 위하여...	
특집	고경래 기자 k21@hank.co.kr
특집	할 수를 기억하시는거? 할 수 친구 영화를 기억하시는거?
특집	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첫 장을 장식하던 주인공들, 바둑01와 수와 영화의 결지 할 그록한 특색 장점이 눈에 선하다. 그전에 두
맞고 살았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할수만 사라졌다. 할수는 어디로 갔는가?
이슈추진	할수는 지난해에 '할'에 갔다. 그리고 2004년 3월30일, 대한민국 A
기획	일찍 7년을 선고했다. 할거나 할거나, 할수의 본명은 음..무..음..
세계기획	

그런데, 그다지 웃기지도 않으면서 보는 이를 기분나쁘게까지 하는
 년센스가 있다면, 이를 어찌해야 할까.
 그냥 '에이 재미없어-~'라고 투덜거리고 잊어버리기엔,
 너/무/나 <년센스>틱한 년센스라면 말이다...
 바로, 한겨레 21에 실리는 <사사 년센스>에 대한 이야기이다.



게그우먼 김미화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다. 그의 신음소리가 아직도 처량하다. 이건 '목행'이 아니라 '고문'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다. 물론 주역을 쓴 건 아니다. 때렸으되, 배신...배신을 때렸다는 거다. 이혼 발표 직전에 그녀를 심층 인터뷰했던 한 잡지기자의 가슴 아픈 스토리다. "님님 행복하다"는 내용에 '명랑소녀'처럼 활짝 웃는 얼굴을 내보냈건만... 어찌 곧바로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해 남편을 고발하며 울먹인단 말인가. 충격을 받은 기자는 인공호흡을 요청했다. 심하게 물을 먹었다며... 1987년 1월14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비명횡사한 박종철이 생각났다. 아, 물고문! 아무튼 그 기자는 가슴을 때리며 담배를 때릴 뿐!

김미화는 오랫동안 자신의 부부생활을 '미화'해왔다. 그랬거나 말거나, 마누라를 때리는 '순악질 남편'들은 '환경미화' 차원에서 용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가 살아 '음메 기죽어'를 희극적으로 복창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기죽어' 소처럼 '음메음메'거리도록 '도살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손과 발'을 이용해 배우자의 몸에 손을 대는(애무 아님) 인간들의 '수족'은 '수족관'에 담가놔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아서, 금붕어들이 수질개선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날라.

하하(허탈한 웃음). 눈을 백다섯번 씻고 봐도 아내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따위는 찾을 수가 없다. 그저 말장난만 가득할 뿐이다. 아내 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가 무슨 환경 '미화'란 말인가. 아내 폭력은 피해자의 삶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위협이며 생존의 문제이다. 단순히 환경 '미화' 따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확실한 '폭력의 피해'와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자꾸 슬데일이 '애무' 따위를 끌어들이며 피해를 가볍게 묘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게다가 뭐? 금붕어들이 수질개선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나? 금붕어의 완관념은 '남편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 좀 때렸다고 너무 심한 벌을 주는 건 지나치지 않아?'라는 것으로밖에 추리가 안되는데, 이런 쟁점.

이 기사, 아내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라도 있었어야 했다.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예의'라도 있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부부생활을 미화해야만 했던' 피해자에게 '당신도 나 때렸잖아!!' 거의 고문 정도로 때렸잖아!!... 배신 때렸잖아!! 따위의 소리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다(저 '한 잡지기자'는 허스토리 5월호에 김미화씨에 관한 기사를 쓴 기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겨레 21-허스토리. 뭐, 확실치 않지만 개인성 있지 않은가?). 아내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뭐? 김미화씨가 기자를 '때려'?! 나. 원. 참. 세상에 논담거리로 써먹어도 괜찮은 것들이 분명 많지만, 그러면 결코!!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의식도 없고 인식도 없고 기본도 없고 예의까지 없는 이 <한겨레21>제 507호의 <맞고 살았다? 김미화도 때렸다>를, 올 상반기 대표 '위스트로' 선정하는 바이다. 짹! 짹! 짹! 상패나 상품? 당연히 없다. 대신 K 기자께서는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서 (내가 매우 존경하는) 정희전선생님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아내 인권」을 필독하시길. 배고 주무시지 마시고, **She Said**

by 늘 다음호에 만날때까지 모두의 심신이 건강하기를!

군산 개북동 화재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기각판결을 규탄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성매매 근절에 책임을 다하라!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북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14명의 여성들이 희생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00년에 발생한 대명동 화재참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화재가 일어난 개북동 성매매업소에서 죽은 14명의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었으며, 감금과 인권유린이 자행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에도 2층에 있던 여성들은 방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설치된 특수 잠금장치 탓에 화재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02년 4월 22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 전라북도, 군산시,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지 2년여가 흐른 지난 5월 14일, 재판부(민사제17합의부)는 이 소송을 기각했다. 사망을 불러일으킨 화재에 대한 책임을 국가·전라북도·군산시에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던 대명동 화재참사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을 지라는 재판부의 판결과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초 있었던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정부의 성매매근절 방침에 전적으로 역행한다.

그러나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의 성매매 방조행위는 너무나 명백하다. 화재가 일어난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에서 50미터 거리에 위치해있던 경찰서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성매매 집결지에 위치한 경찰서의 현직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성매매를 근절하기는커녕 포주들과 유착관계에 있어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들이 감금되어있던 작은 일베공간은 창이 전혀 없고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잠금장치로 닫혀있는 등 소방법에 분명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와 경찰서의 유명무실할 뿐인 형식적인 단속에 의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성매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더욱이 경찰들이 포주로부터 성상납, 뇌물상납을 받는 등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포주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7일에 있었던 재판부의 기각 판결은 이를 불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성매매근절을 위한 노력과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의 인권을 부정하고 이에 퇴행하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성매매근절의 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야 할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군산 개북동 화재참사나 이번 기각 판결은 비단 하나의 개별적이고 불연속적인 사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성매매 현장에 유입되어온 여성들의 인권과 그녀들이 처한 폭력적 현실에 얼마나 철저히 눈감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다. 이에 국가·전라북도·군산시는 책임을 지어 마땅하며 재판부 역시 향후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 및 성매매근절 실현을 위해 의지를 새로이 다져야 할 것이다.

2004년 5월 31일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제16대 총여학생회